

박사학위논문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와 국내정착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박 민 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문석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와 국내정착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A Ground Theory Study o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omestic
Settlement Process.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박 민 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문석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와 국내정착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A Ground Theory Study o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omestic
Settlement Process.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박 민 우

박민우의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지성 (인)

심 사 위 원 권 향원 (인)

심 사 위 원 김 수경 (인)

심 사 위 원 김 은정 (인)

심 사 위 원 조 문석 (인)

국 문 초 록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와 국내정착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박 민 우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정착과정을 근거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탈북민이라는 존재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사례이다. 국제적 이주현상으로 이민과 난민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 탈북민의 이주는 이민이나 난민과는 그 성격과 특성이 다르다.

같은 한반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혈통과 역사, 언어, 문자를 공유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정치체제로 인해 함께 살지 못하고 2개의 국가체제로 분리되어 있다. 탈북은 북한을 탈출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이주의 형태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이민도, 그렇다고 비합법적 난민의 형태도 아니다. 자신의 조국을 탈출하여 떠나면 여정을 돌아서 들어오는 지역도 같은 한반도의 또 다른 조국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이나 난민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으로는 탈북민에 관한 현상을 설명하기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근거이론에 입각한 탈북민 국내정착과정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절차에 의거한 이론기반 도출을 시도하였고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 검토,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탈북민 국내정착과정의 중심현상은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로 분석되었고 중심현상의 수준에 따라 ‘한국민 인식’, ‘중간자 인식’, ‘국외이주’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과정분석 결과로 제1단계 ‘개인적 생존’, 제2단계 ‘사회적 적응’, 제3단계 ‘대한민국 동화’이고 유형분석 결과는 ‘운명개척형’, ‘현실안주형’, ‘회피형’의 3가지이다. 이와 같은 각 단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최종적 연구이론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은 대한민국에서의 생존과 적응, 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차이점과 제한점을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취업과 경제력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한국민이자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주요어】 탈북민, 국내정착, 근거이론, 정착지원제도, 패러다임 모형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 목적	1
제 2 절 연구 문제	3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검토	5
제 2 절 이주관련 학술이론 고찰	20
제 3 절 탈북민 정착관련 선행연구 검토	28
제 3장 연 구 방 법	35
제 1 절 근거이론 적용	35
제 2 절 연구참여자 선정	42
제 3 절 연구자	44
제 4 절 연구 및 자료수집 과정	45
제 5 절 자료 분석	50
제 4장 연구분석 과정	57
제 1 절 개방코딩 수행	57
제 2 절 축 코딩 수행	70
제 3 절 과정분석 수행	81
제 5장 연구 결과	91
제 1 절 선택코딩 결과	91
제 2 절 유형분석 결과	94
제 3 절 상황모형 분석 결과	101

제 6장 결론 및 논의	106
제 1 절 연구 요약	106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논의	106
제 3 절 정책대안 제시	110
제 4 절 결 언	112
참 고 문 헌	114
부 록	119
ABSTRACT	123

표 목 차

〈표 2-1〉 탈북민 호칭 변경	5
〈표 2-2〉 탈북민 국내입국 현황	7
〈표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에 관한 법률 변화과정	9
〈표 2-4〉 정착지원제도 주요내용 종합	11
〈표 2-5〉 Galtung의 욕구해소 방안	25
〈표 2-6〉 탈북민 정책과제 연구 분류	28
〈표 2-7〉 탈북민 정착관련 선행연구 요약	29
〈표 3-1〉 연구참여자 기본사항	43
〈표 3-2〉 반 구조화된 면담수행 5단계	48
〈표 4-1〉 코딩결과와 패러다임 요소	58
〈표 5-1〉 가중치 분류표	103
〈표 5-2〉 대한민국 정착진행 가중치 분석표	104
〈표 5-3〉 성공적 대한민국 정착 가중치 분석표	105

그림 목 차

〈그림 2-1〉 탈북민 입국 및 정착 흐름도	18
〈그림 2-2〉 정착지원 체계도	19
〈그림 2-3〉 Galtung의 욕구체계도	25
〈그림 3-1〉 분석결과와 흐름 모형도	56
〈그림 4-1〉 패러다임 모형	71
〈그림 5-1〉 상황모형도	101
〈그림 5-2〉 상황모형 그래프	10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 구 배 경 / 목 적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수는 최근까지 약 33,000명¹⁾을 넘어서고 있는데 향후 북한의 국경통제 상황이 완화될 경우 증가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장기간 대북제재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과 김정일에 이은金正은의 폭압정치, 그리고 한류문화의 은밀한 확산으로 인해 탈북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현재는金正은의 특별지시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북·중 국경이 봉쇄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어 탈북민의 증가추세가 주춤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젠든 국경통제가 완화되면 탈북민의 숫자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급속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연구자는 북한관련 부서에 약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중국 접경지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정착한 수많은 탈북민을 접촉하였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국내·외에서의 탈북민 적응상황과 문화, 사고방식 등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지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업무와 관련한 경험적 특성이 금번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질적연구에 필요한 학문적 감수성 측면에서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고위급 탈북민에서 부터 소위 ‘꽃제비’²⁾ 라고 하는 최하층의 탈북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상대하였다. 그들의 국내 정착과정의 그 시작부터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탈북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탈북민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자적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탈북민들의 재북 시절과 탈북동기, 탈북이후~제3국, 제3국~국내입국, 국내 입국 이후 국내정착까지의

1) 통일부 통계 (2020)

2) 북한에서 일정한 거주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구걸이나 도둑질 등을 하는 유랑인을 지칭하는 은어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개개인들은 국내입국 이전까지는 각양각색의 각기 다른 환경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 이후에는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에 의한 공통적인 조건하에 정착하게 된다. 탈북민의 각기 다르거나 유사한 경험적 요소들이 국내정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왜’ 탈북민은 당시에 그와 같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과 선택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정착과정을 구성하는지에 연구중점을 두었다. 탈북민 국내정착 사례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근거이론³⁾에 입각한 질적연구를 선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탈북민 대상 연구들이 있었고 주로 변인과 영향요소의 관계에 의한 양적 연구와 개별사례 중심의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탈북민 전체를 아우르고 국내 정착과정 전반을 설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탈북민 국내정착 과정의 공통 상황을 중심으로 근거이론에 입각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정착과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 및 연구결과가 본 연구의 학문적 차별성과 학술적 의의 및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 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은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책 목표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⁴⁾ 그렇다면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탈북민의 국내정착 상황은 녹록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그들의 사회주의 사고방식, 낯선 문화 환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남한사람들의 차별의식, 열악한 경제여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은 탈북민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탈북민도

3) 실증적인 조사에서 이론을 생성하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현장에서 존재하는 연구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유도된 이론

4)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제3조 제4조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들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이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 희망이 되고 향후 남북통일 시기에 국민통합, 민족통합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 구 문 제

근거이론에 기반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국내 입국 이전 일련의 전개상황과 배경 등을 알아야 국내에서의 정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요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거주시 부터 탈북과 제 3국 이동, 국내 입국과 현재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심대상은 국내 입국 이후의 정착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핵심적인 연구문제로 다음 5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탈북민은 국내입국과 국내정착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연구문제 2. 탈북민이 국내정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3. 탈북민 정착과정 영향 요인들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작용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탈북민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심적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5. 탈북민 정착과정에서의 정착지원제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탈북민이 한국으로 오는 경로와 배경이 국내정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국내정착 과정에서 공통적인 경험과 차이점이 연구결과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근거이론의 중요내용인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탈북민 국내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탈북민 정착과정의 다양한 조건과 상황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이론 연구의 핵심은 중심현상을 도출하는 것이다. 정착과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중심현상과 연관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민 국내정착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유일한 정책수단이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정착지원제도의 역할과 효과측면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검토

1) 탈북민의 개념

‘탈북민’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며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 망명한 사람을 가리킨다. 북한 이탈주민은 정부의 공식명칭이자 법률상 용어이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⁵⁾ 제2조에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 가정,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외에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혼용되어 왔고 아래와 같이 시대별로 호칭이 변경되었다.

〈표 2-1〉 탈북민 호칭 변경

시기	1993년 이전	1994~1996년	1997~2004년	2005~2008년	2008년 이후
용어	귀순자, 귀순용사	탈북자,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출처: 연구자 정리

한국전쟁 직후 다양한 이유로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탈출해 왔다. 초기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해 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정치유로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정치적인 호칭인 ‘귀순자’, ‘귀순용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남북의 경제수준이 역전되고 북한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탈북민들의 탈북 동

5) 탈북민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법률 제15432호)

기는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였고 그 중의 다수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4년에 처음 사용된 탈북자라는 용어는 2004년 통일부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공식 선정된 것이다. 이후 1997년부터 법률상 용어로 정해진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인데 탈북자라는 의미가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통일부는 국내거주 탈북자를 순화한 용어인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는데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이다. 이때부터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탈북단체와 사회 일부에서 용어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용어의 의미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만 의미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로 평가되었다.

2008년 11월에 통일부는 부적절하다고 평가된 ‘새터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식 법률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탈북자’의 대체용어로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탈북민’이라는 호칭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용어이고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약칭이기도 하고, 개인 개념을 포함한 전체의 의미, 그리고 가장 거부감이 적은 호칭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다.

2) 탈북민 국내입국 추세

2021년 6월 기준 총 33,788명(남 9,455명, 여 24,333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연간 입국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3년~2011년에는 연간 입국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인원

이 감소하여 연간 1,100~1,500여명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0년에는 229명이 입국하였다. 2021년에는 6월말 기준 입국인원은 36명으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통제,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⁶⁾

〈표 2-2〉 탈북민 국내입국 현황

구 분	남 (명)	여 (명)	합계(명)	여성비율(%)
~ '98	831	116	947	12.2
~ '01	565	478	1,043	45.8
'02	510	632	1,142	55.3
'03	474	811	1,285	63.1
'04	626	1,272	1,898	67.0
'05	424	960	1,384	69.4
'06	515	1,513	2,028	74.6
'07	573	1,981	2,554	77.6
'08	608	2,195	2,803	78.3
'09	662	2,252	2,914	77.3
'10	591	1,811	2,402	75.4
'11	795	1,911	2,706	70.6
'12	404	1,098	1,502	73.1
'13	369	1,145	1,514	75.6
'14	305	1,092	1,397	78.2
'15	251	1,024	1,275	80.3
'16	302	1,116	1,418	78.7
'17	188	939	1,127	83.3
'18	168	969	1,137	85.2
'19	202	845	1,047	80.7

6) 통일부(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9.

‘20	72	157	229	68.6
합계	9,435	24,317	33,752	72

출처 : 통일부(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9에서 연구자 재구성

3)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검토

가) 탈북민 지원정책 변천과정⁷⁾

정부에서는 1962년 4월에 최초로 북한을 탈출한 귀순자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원호대상자’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1979년 1월에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제정하여 정부는 월남 북한인을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호칭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시행하였다.

1993년 6월에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여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탈북민이 급증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1997년 1월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실에 맞는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후 교육지원 연령범위가 확대되었고 2004년에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도입, 2008년에 취업보호기간 확대, 2010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2017년~2018년 영농지원 근거 마련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 2019년에 신변보호 제도 개선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탈북민 정착 지원정책이 정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7) 이하 내용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내용 연구자 요약 서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검색일 2021.7.11.)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⁸⁾

정부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자활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1997년 1월 14일 제정함에 따라 1999년에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⁹⁾ (‘하나원’)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시설을 추가로 확충(제2하나원)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 교육을 강화하여 심리 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탈북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취업문제 해결 및 직장 소개를 위해 노동부, 기업,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9월 27일에 동 법률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현 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및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3년 8월, 2014년 1월, 2014년 5월에도 동 법률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기본계획 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보완되었다.

〈표 2-3〉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변화과정

구 분	내 용
1997~1999년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1999~2004년	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탈북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2004~2006년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8) 탈북민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 (2018.3.13., 법률 제15432호), 1997년 제정된 뒤 2018년까지 총 18차례 개정 이하 내용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주요내용 연구자 요약 서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
(검색일 2021.7.11.)

9) 탈북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 1999년 7월 8일 개원

2006~2008년	이혼특례 조항 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2009년~	해외 장기체류자 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 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2013~2014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2017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의무화/영농지원 근거 마련
2018년~	대안학교 지원확대 근거 마련
2019~2021년	신변보호 및 보호결정제도 개선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내용 연구자 재정리.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
(검색일 2021.9.30.)

이 법은 1조 ‘목적’에서 34조 ‘과태료’까지의 본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은 1조 ‘목적’에서 51조 ‘규제의 정도’까지의 본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법 조문 중에서 탈북민 국내정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필수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정의’로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인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 보호금품 등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을 설명한다.

제3조는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 2항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3항은 ‘보호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1항에서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정해 놓았다.

제15조는 사회적응교육 등의 책임이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8조는 특별임용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다)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내용

〈표 2-4〉 정착지원제도 주요내용 종합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1인세대 기준 800만원 지급
	장려금	취업장려금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 부모, 제3국 출생자녀 양육 등 요건에 따라 지급
주거	주택알선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노동부)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단, 2014. 11. 29 이전 입국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60여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기타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240명), 취업보호담당관(60명), 신변보호담당관(약900명)

출처 : 통일부(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p.16-17 연구자 재정리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¹⁰⁾

정착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탈북민이 국내정착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탈북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탈북민의 자발적인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금을 축소하고 개인의 성과나 노력 정도에 의한 장려금 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착금 내역은 탈북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 이외에 탈북민 개인의 자립 노력 정도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탈북민 모두에게 1인 세대 기준 800만원과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포함하여 2,40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5년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한다. 정착가산금은 노령, 장애, 장기질병, 한 부모 가정, 제3국 출생자녀 양육 가정의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더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한다.

10) 이하 내용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주요내용 연구자 요약 서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
(검색일 2021.7.11.)

(2) 취업지원제도¹¹⁾

정부는 탈북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을 소개하며 지역별로 취업지원 시행과 탈북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와 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하나원에 수용된 탈북민이 직업훈련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추가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대한민국 사회로 배출되는 탈북민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서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상호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탈북민의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으로의 연결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역할모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60여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서는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탈북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진로상담과 지도를 하며 직업훈련기관을 소개하기도 하고 탈북민 고용이 가능한 직장장과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탈북민 취업보호대상자(2014.11.29. 이전 입국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탈북민에게는 고용지원금 대신 정착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1) 이하 내용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주요내용 연구자 요약 서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
(검색일 2021.7.11.)

(3) 교육지원제도¹²⁾

탈북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사·도 교육감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다. 탈북민이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하고 있다. 일반 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탈북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하는 경우 국·공립대학은 학교에서 면제가 되고 사립대는 정부에서 50%를 보조하고 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기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나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한다.

현재 국내입국 탈북민 중 10대 청소년은 약 12%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 공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¹³⁾와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및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등의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4) 사회보장지원제도¹⁴⁾

‘국민기초생활보장법’¹⁵⁾에 따라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에 대해서

12) 이하 내용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주요내용 연구자 요약 서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
(검색일 2021.7.11.)

13) 탈북 청소년과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들이 입학 대상, 2005년 7월 설립

14) 이하 내용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주요내용 연구자 요약 서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
(검색일 2021.7.11.)

1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 적용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¹⁶⁾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금특례는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5년이면 노령연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거주지보호제도¹⁷⁾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한 탈북민은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 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에 전입하는 탈북민에 대해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한다. 초기집중교육으로 8일 50시간을 교육하고 지역적응 체험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2009년에 6개 시범센터 운영, 2021년 25개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착도우미는 2005년 1월 처음 시행되었다. 탈북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 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는 자원봉사자이다.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16)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개정 2013.6.12.)

17) 이하 내용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주요내용 연구자 요약 서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
(검색일 2021.7.11.)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사업으로 탈북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제도이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거주지 보호업무 총괄 조정,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특약제도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 의료지원,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탈북민 생활실태 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 지역협의회 구성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관리, 탈북민 지원관련 사회단체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종교단체·민간기관과의 연결,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 추진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에 약 244개 지자체에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은 탈북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탈북민의 신변위해 보호, 탈북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약 900여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내 거주자·취업·신변보호담당관 및 종교단체·복지관·사회단체 관계자, 지역적응센터와 탈북민 으로 구성된다. 탈북민의 안정적인 거주지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탈북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탈북민 인식개선 사업과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전국에 132개 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6) 주거지원제도¹⁸⁾

주거지원제도는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 전입하는 탈북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배정하는 것으로 거주지역 선택시 먼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특정지역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 차 순위지역 순으로 배정한다.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정받은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하고 있다.

18) 이하 내용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주요내용 연구자 요약 서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
(검색일 2021.7.11.)

주거지원금의 금액 규모는 정착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호결정(세대 결정) 당시 산정되며 거주지 전입시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급한다.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은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주거지원금 중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끝난 후 해당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그러나 5년 이내라도 통일부 지침에 규정된 사유 발생시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7) 민간지원¹⁹⁾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²⁰⁾(‘남북하나재단’²¹⁾)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확대 개편되어 2010년 9월 27일 출범하였고 ‘하나원’ 이후 민간차원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이 재단은 탈북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민간차원의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사업,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지원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사업으로 탈북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하는데 탈북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기관의 역할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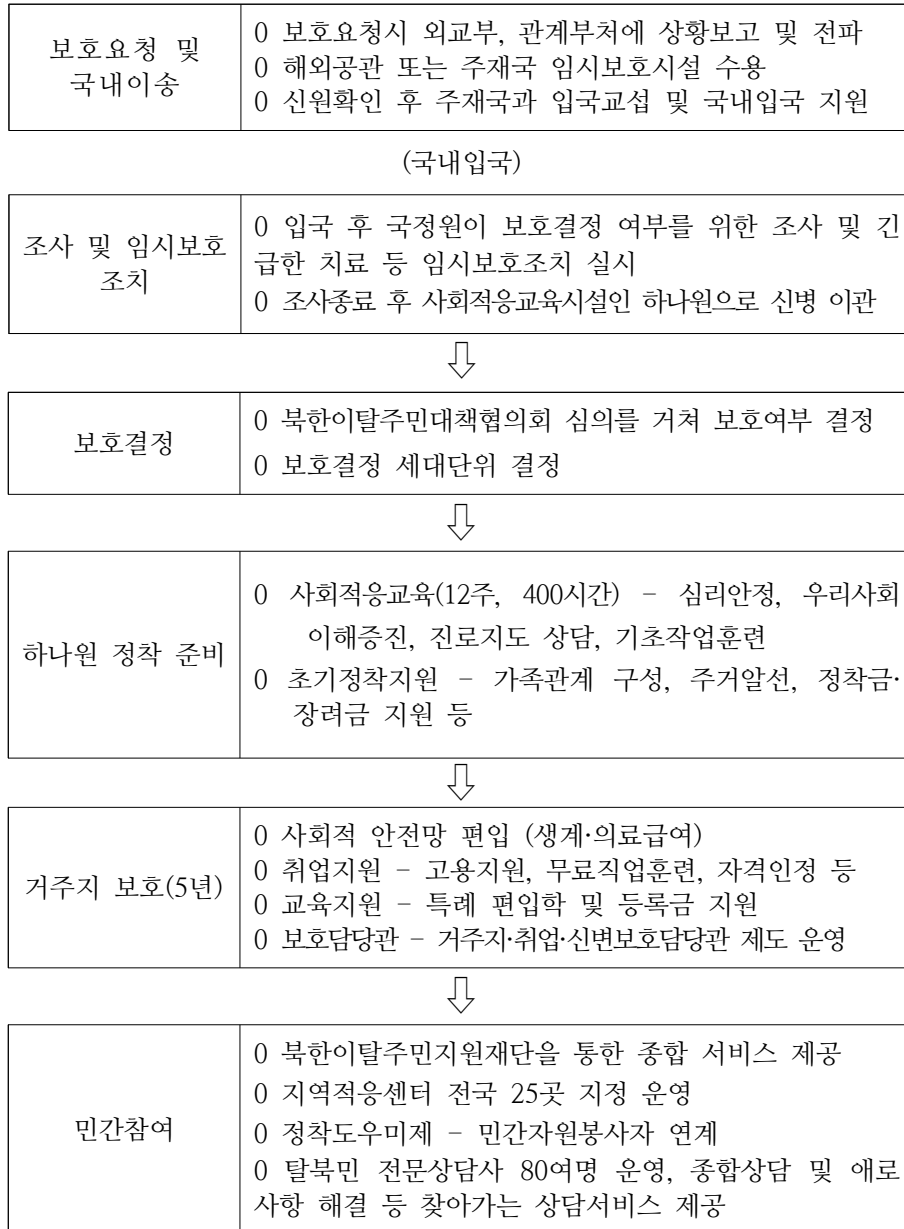
19) 이하 내용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주요내용 연구자 요약 서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entry>
(검색일 2021.7.11.)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법률상, 등기부상 명칭

2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대외명칭, 2014년부터 사용

라) 탈북민 입국 및 정착과정

〈그림 2-1〉 탈북민 입국 및 정착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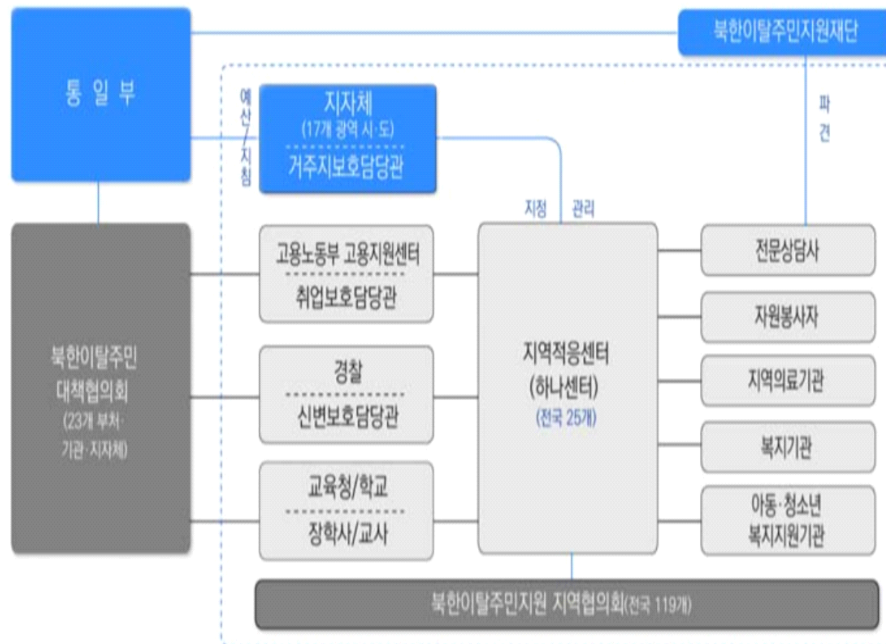


출처: 통일부(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15.

마)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

탈북민의 실질적인 국내정착은 하나원 퇴소 이후 거주지를 배정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2〉 정착지원 체계도



출처: 통일부(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14

거주지역별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 민간단체, 지역 거주 탈북민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²²⁾

지금까지 탈북민 정착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전반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이 탈북민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본 연구 주제인 탈북민 국내정착 과정과 관련한 심층면접 등의 수집자료 내용과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책개선 사항 염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제도 검토에 의미를 두는 것은 향후 통일 시기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제도수립에 있어서 현재의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와 정책이 중요한 참고점과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탈북민 국내 정착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정착지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이 미래 통일시대의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지원과 복지증진,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정책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 2 절 이주관련 학술이론 고찰

개인 및 가족 단위 국가와 국가 간 이주의 일반적인 형태는 크게 이민과 난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민은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 자기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 영토에 이주하는 일 또는 사람²³⁾을 의미하고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집단에의 귀속의 이유로 박해를 받는 자, 또는 박해의 공포 때문에 자기 국적을 떠나 있는 자로서 자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런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²⁴⁾로 규정한다.

탈북민의 이주와 국내 정착은 이민의 형태 보다는 정치적·사회적·인도적인 이유 등으로 북한을 탈출하였다는 점에서 난민의 형태에 가깝다. 다만

22) 통일부(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14 연구자 재정리

23) 유정석(2005), 「현대의 난민문제와 한국; 선진국의 난민정책: 캐나다의 이민-난민정책」, 민족연구 23권 0호, p.143.

24)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정(제네바 협정, 1951)

난민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이주한 지역이 외국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자기나라 영토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을 한국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내 이동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탈북민의 이주와 국내정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얹혀있어 학문적으로 규정하거나 어떤 학술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여기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관련이론을 살펴보고 그 적합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적응 이론

문화 간 이동과 접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응문제에 대한 연구는 1980년경부터 크게 증가하여 많은 수의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이론들과 연계하여 질적으로도 이론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정진경·양계민, 2004).

국가 간의 문화충돌을 경험하는 대상들은 국경을 마주한 인접 국가들과의 사이에서나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같은 종교 간의 차이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문화적응 이론’에서 주로 다루는 문화 충돌은 한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민자와 난민의 사례이다.

그동안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민자들이나 일시적 체류자 등과 달리 난민의 경우 문화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가 가장 어려운 집단으로 분류되어 왔다(정진경·양계민, 2004; 전명희, 2012: 92). 그 이유는 난민이주 과정에서 일어났던 ‘인권에 반하는 충격사건 경험’(Human rights violation Traumatic experiences)들이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문화적응의 문제를 넘어서는 총체적 적응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am and Berry, 2006; 전명희, 2012: 93).

이주난민들은 새로운 국가에 도착해서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데 공황상태, 테러공포, 슬픔, 절망, 악몽 등에 시달리게 되고 확신감의 상실로 인한 의존성, 무기력, 수동성뿐만 아니라 우울증, 낮은 자긍심, 소외감, 불안감, 관

제갈등,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정체성 혼란 등을 경험하게 된다 (Williams and Berry, 1991; 전명희, 2012: 93).

문화적응 이론을 체계화 하는데 공헌한 Berry(1986)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 간의 접촉을 ‘문화적응’이라고 하고,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정의 내렸다(전명희, 2012: 93에서 재인용).

Berry(2001)의 연구에 의하면 원래 문화 및 새로운 문화와의 동일시 수준에 따라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합’이란 새로운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이전 문화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을 말하며 ‘동화’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원래 문화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전명희, 2012: 93에서 재인용).

Sam & Berry(2006)는 난민들의 문화적응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문화적 수준과 심리적·개인적 수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문화적응 과정을 출발 전 단계와 비행, 수용단계, 청구과정, 정착과정, 그리고 적응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전명희, 2012: 93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탈북민은 북한 내에서와 이동과정에서 상당한 외상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난민이주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금명자·권해수·이희우(2004)는 문화적응 이론에 입각하여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유형과 정체감의 변화양상 등을 연구하였다. 탈북 청소년들은 하나원 시절을 포함한 보호기간 4개월 동안에는 ‘동화’ 유형, 4개월 이후 1년 동안에는 ‘분리’ 유형, 1년에서 2년 동안에는 ‘주변화 유형’, 그리고 2년 이후에는 ‘통합’ 유형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금명자 외, 2004). 하지만 문화적응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단순히 적응기간만 적용하는 것 보다는 탈북 청소년의 개인적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개인적 특성에 의한 유형 분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혜(2016)는 대안학교 출신 탈북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접촉한 이후에 경험하는 문화적응의 과정과 전략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대안학교 출신의 탈북 대학생들은 대학진학 후 초기에는 주로 ‘동화’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두 문화집단을 모두 고려하는 ‘정체성에 대한 탐

색’, ‘입국 전 경험의 의미 찾기’, ‘자기성찰과 현실 수용’이라는 적응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새로운 적응전략의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적응이론’은 난민의 특성을 가지는 탈북민이 북한과는 다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문화에 적응하는데 참고할 만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같은 민족이자 또 하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정착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학술적 보완 소요가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

탈북민의 경우 한국민과 같은 역사와 언어와 문자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Berry(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 유형과는 그 개념과 정도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출발 전 단계 ~ 적응까지의 6단계 과정 중에서도 생략되거나 추가해야 할 단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국가와 정치체제이지만 민족 간의 문화적응 사례인 탈북민 국내정착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이론 기반 도출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욕구이론²⁵⁾

일반적으로 ‘욕구이론’ 이라고 하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개인적 욕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인간욕구의 만족은 한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욕구가 생기거나 상위의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자원과 수단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충족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인간 욕구라는 수요의 무한성에 비해 사회적 수단과 공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요의 무한성과 공급의 유한성이 대립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

25) 다양한 욕구관련 이론 중 Johan Galtung의 이론 적용

제와 갈등 해소를 위해 인간은 이성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통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의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 갈등의 정도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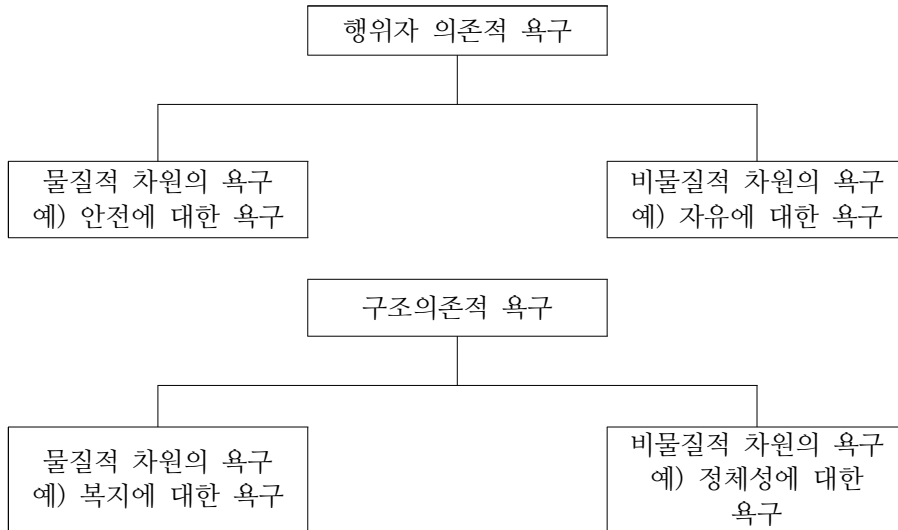
Gillwald(1990)는 그 이유를 개인들 사이에 욕구충족 수단 획득을 위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갈등이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신율, 2015: 131에서 재인용). 그래서 욕구의 무한성과 수단의 유한성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를 위해 Galtung은 갈등을 유형화 하고 있다.

Galtung(1990)의 욕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를 크게 행위자 의존적 욕구와 구조 의존적 욕구 2가지로 구분한다. 여기서 행위자 욕구란 행위자 개인적 차원에서 욕구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개인의 능력과 동기에 의해서 욕구충족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구조 의존적 욕구란 정치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만 욕구충족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신율, 2015: 131에서 재인용).

또한 Galtung(1990)은 이 2종류의 욕구 하위에 다시 4종류의 욕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행위자 의존적 욕구와 구조 의존적 욕구를 각각 물질적과 비물질적 욕구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행위자 의존적 욕구 중 물질적 차원의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며 비물질적 차원의 욕구는 자유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인데 이는 억압을 거부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본성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구조 의존적 욕구 중 물질적 차원의 욕구로는 복지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이고 비물질적 차원의 욕구로는 정체성에 대한 욕구와 같은 것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정체성에 대한 욕구란 한 집단 내에서나 혹은 집단 간에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와 관련된 욕구로 분석하였다(신율, 2015: 131에서 재인용).

Galtung의 욕구이론을 그림과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Galtung의 욕구체계도



출처 : 신울(2015), 「탈북독 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사례연구」,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p.132

〈표 2-5〉 Galtung의 욕구해소 방안

갈등의 종류	해소 방안
안전, 생존에 대한 욕구	정책 혹은 군사적 방법
복지에 대한 욕구	교육, 일자리 창출, 의료제도 개선
정체성에 대한 욕구	종교, 이념, 가족관계의 재정립
자유에 대한 욕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예: 결혼, 선거, 조직 등의 제도적 보완)

출처: 신울(2015), p.132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욕구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일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만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불만족이 누적되면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고 건전한 가치관과 합리적인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갈등이 존재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그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사회적 불만과 갈등 요소가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가치관이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 의존적 욕구와 구조 의존적 욕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한쪽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다른 쪽의 욕구 충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체 욕구충족 체계에 비정상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신울(2015)은 이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복지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안전, 생존에 대한 욕구 충족이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 정체성 형성과 자유의 확보도 어려워지게 된다. 여기서 바로 물질적 요소 즉, 경제적인 문제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영향 요소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욕구 이론’은 결국 사회적응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인 사회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신울(2015)은 탈북민들의 사회적응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자 독일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여기서 Galtung의 욕구이론 등을 이용하여 통일 이전 탈 동독 주민들의 사회적응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탈북민의 정착현상과 비교하면서 사회적응 실패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응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경제적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민의 국내정착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욕구 이론’도 유용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욕구 이론은 이주자나 난민의 경우가 아니라도 어느 사회에 속한 개인의 일반적 삶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이해된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은 소수의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따라서 탈북민 국내정착 일반사례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론을 개발하고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이주론

Castles과 Miller²⁶⁾는 현대의 이주현상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류재화, 2016: 6에서 재인용). 첫 번째로 ‘이주의 글로벌화’로 국가 간의 이주가 국제적 현상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이주의 가속화’로 이주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 ‘이주의 차별화’로 입국의 형태와 방법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네 번째 ‘이주의 여성화’는 여성비율이 높음을 나타내고 다섯 번째 ‘이주의 정치화’는 이주문제가 글로벌과 국가적 정치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이주의 환승(지) 증가’로 한국과 폴란드처럼 과거 이주민의 송출국 이었던 나라가 이주 환승이나 영구 이민을 수용하는 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Castles과 Miller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주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가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주론은 전 세계적 이주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동아시아 한반도에 국한한 탈북민 정착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탈북민 국내정착과정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의 학술이론 고찰을 통하여 각각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한계를 살펴 보았다. 이 밖에도 ‘적응론’²⁷⁾, ‘사회적 배제론’²⁸⁾, ‘다문화주의 이론’²⁹⁾ 등의 관련 학술이론이 존재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사례연구에 적합한 이론으로 탈북민 정착과정과 같은 특별하고 제한적인 사례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탈북민 국내 정착과 관련하여 지엽적이거나 부분적인 분석과 설명이 가능할 뿐 전 세계에서 유일사례인 한반도 분단국가의 탈북민의 정착과정 전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

26) 유형이론의 틀을 사용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연구

27) 사회적응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이론

28)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에 의하여 불리한 소수자가 발생한다는 이론

29) 다수집단에 속해 있는 소수집단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이론

기에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북민 국내 정착 과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과 이론기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 3 절 탈북민 정착관련 선행연구 검토

1) 기존 선행연구 추세

1990년대 이전 지금과 같이 탈북민의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주로 북한의 정치·군사적 문제와 남북 교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탈북민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연구의 특징으로는 북·중 접경지에서 집중되고 있는 탈북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급증하는 국내입국 탈북민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교육이나 심리, 여성이나 청소년 문제, 선교 등으로 그 연구대상이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대석 (2010)의 연구에서 2000년대 탈북민 정착연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정리하였는데 다음 표와 같이 연구주제를 분류하였다.

〈표 2-6〉 탈북민 정책과제 연구 분류

대분류	중분류	비고
정책일반	정착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기타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집단	일반, 아동, 청소년, 여성, 대학생, 기타	성인포함, 유아 포함
공간	하나원, 지역사회, 학교, 직장, 가정, 기타	정규학교, 대안학교
주제	직업, 적응, 인권, 보건의료, 언론정보, 민간단체, 남북통합, 종교, 기타	고용, 직업훈련포함, 소외, 좌절, 통합 등 차별 포함, 가족재결합 포함

출처 : 최대석 (2010), 「탈북자 정착연구 실태분석과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pp.3-5; 안상운(2013).p.13

이와 같이 탈북민 정착과 관련한 연구는 초창기부터 2000년대 까지 주로 단편적 정책과제나 사회현상별 사례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에도 탈북민 정착 관련 소수 사례나 특정계층의 실태, 정책 효과성 문제 중심으로 탈북민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을 참고하여 탈북민 국내정착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과정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최근 선행연구 세부 검토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의 정착과 관련된 주제에 한정해서 최근 5년의 연구 내용과 경향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 하였다.

〈표 2-7〉 탈북민 정착 관련 선행연구 요약

분야	연구자	연구주제	년도	연구요지	비 고
취업 / 직업	조인수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문화충돌과 직업적응과의 관계 분석	2017	남성보다 여성, 40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문화충돌경험이 더 많고 직업적응은 개인별로 상이한 경향	혼합 연구 방법
세대 / 성별	이은혜	두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경험과 정체성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2017	북한과 남한사이에서의 중간자적 정체성 형성과 동등함 증명을 위한 노력,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과정 서술	내러티브 탐구
취업 / 직업	오은경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 과정	2018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중심현상과 총 5개의 적응단계 도출	근거 이론 기반
세대 / 성별	문희정	탈북 후기청소년의 대학 적응	2018	문화적응과 학업적응, 발달시기 등 복합적 측면이 고려된 교육적 지원 필요	내러티브 탐구
취업 / 직업	이지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적응에 관한 연구	201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주의 평가와 직장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사례 연구

제도	조민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방안 연구	2019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거버넌스 중심의 개선방안 제시	델파이 연구
세대 / 성별	장정은	무연고 탈북 여자청소년의 정착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	2020	북한생활-탈북과정-국내 정착으로 이어지는 2인의 사례연구를 통해 학문적·정책적·실천적 함의 제시	생애사 연구
제도	노길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와 시사점 연구	2020	국내 정착관련 유형별 문제점과 원인을 도출하고 사회통합 방향 제시	사례 연구
세대 / 성별	이명신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정착 만족도 고찰	2020	한국 정착관련 주제 도출과 삶의 만족도 영향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안	혼합 연구
제도	이종아	남한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자원 전환 및 창출에 관한 연구	2010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경제적·사회적·상징적·문화적 자원의 손실과 형성과정 분석	심층 면접

출처: 연구자가 종합하여 별도정리

최근 선행연구의 연구경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은혜(2017)와 문희정(2018), 장정은(2020), 이명신(2020)은 탈북민의 특정 세대와 성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은혜(2018)는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 입국 이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서 성장한 두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경험과 정체성 변화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려고 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언어적·문화적 차이와 상이한 교육체계, 과정의 생경함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의 교육 공백 등에 의해 다층적인 고충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문희정(2018)은 탈북 청소년들이 대학적응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심리·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의의로는 탈북 청소년의 한국사회와 학교에서의 경험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학적응과정에서의 개별화된 특성을 사회적 맥락 속에 살펴봄으로써 실제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정은(2020)은 무연고 탈북 여자청소년의 북한 거주와 탈북과정, 한

국으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성에서 그 경험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3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학문적 함의로는 무연고 탈북 여자청소년의 정착경험과 의미 발견을 통해 정착을 어떻게 개념화 하는지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로는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은 젠더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인생의 각 발달 단계마다 과업 완수를 돕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실천적 함의로는 하나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더 세분화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신(2020)은 혼합연구 기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탈북은 굶주림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 ‘인간의 기본권을 포기한 탈북과정’ ‘한국사회 적응은 현재진행형’이란 3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가족 수 등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수준과 가족이, 사회적 요인으로는 부모 불안감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4가지 연구에서는 주로 청소년과 여성 탈북민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탈북민 정착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여성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조인수(2017)와 오은경(2018), 이지영(2019)은 탈북민의 취업과 직업에 관한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인수(2017)는 탈북민이 국내 입국 후 어떠한 과정과 결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응, 그 과정에서 직업문화충돌에 대한 인식과 극복, 직업생활 적응의 형태 등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었고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의 결과 북한에서의 직업 환경과 개인의 진로배경은 가정중시, 북한에서의 직업 경험, 탈북동기, 개인 정체성으로 분류하였고 성공요인으로는 새로운 삶을 구상, 지속적인 취업 노력 등을 주제로 분류하였다. 양적 연구의 결과 탈북민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직업문화충돌의 정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그 중 40대가 가

장 높았으며 학력이 높고 직업에 대한 목표와 기대치가 클수록 문화충돌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했다. 수입이 낮은 경우 직업문화충돌이 낮게 나타났다. 탈북민은 자율성, 문화학습, 통합이 높아지면 직업적응 전체도 높아지지만 배타성이 높아져서 직업적응의 양면성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오은경(2018)은 근거이론에 입각해서 탈북민의 직업적응 과정을 살펴보았다. 중심현상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유발하는 인과적 조건은 ‘순탄치 않은 남한의 삶’ ‘기대와 다른 직장생활 장벽의 부딪힘’ ‘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다. 중재조건으로는 ‘맨 몸으로 버틸 수 있었던 개인적 자원’ ‘버팀목이 되는 남·북한의 가족’ ‘온기를 나누는 남·북한 지인들’을 도출하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죽기 살기로 버티고 견뎌’ ‘직업적 능력 향상을 위한 고군분투’ ‘자신만의 새로운 적응양식을 습득’ 등 10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과정분석을 통하여 탈북민의 직업적응 과정의 주요 단계를 ‘초기 적응 단계’, ‘실천적 고투단계’, ‘시행착오 단계’, ‘재정립 단계’, ‘정체성 형성 단계’의 다섯 단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선택코딩 과정에서 생성된 핵심범주는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 직업인으로서 몰이해의 장벽을 건디며 중간적 정체성 형성을 통해 삶의 의미를 확장시켜 나감’으로 정리하였다.

이지영(2019)은 국내 탈북민의 취업 및 적응과 관련하여 탈북민과 고용주의 경험과 사회적응교육,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민의 직장에서의 부적응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하나원과 하나센터에서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현장체험 중심의 직업적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직업훈련기관들에서는 자활·자립을 위한 맞춤형 직업기술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긴밀한 협업으로 탈북민이 실제 취업과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과 정치체제, 경제관리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넷째, 탈북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지원체제 재구축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3가지 연구에서는 탈북민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

상 중에서도 취업과 직업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실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핵심 난제가 취업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탈북민 정착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지속적 관심분야였던 정책과 제도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는데 조민희(2019)와 노길수(2020), 이종아(2020)의 연구이다.

조민희(2019)는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문헌 조사, 델파이 조사, 인터뷰 조사, 비교연구방법 등 네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탈북민의 국내정착 지원정책, 탈북민의 취업실태와 직업교육훈련 등을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탈북민의 한국사회 정착 실패 원인,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도, 사회적응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을 평가하고 탈북민 정착지원 기관 운영과 재사회화 제도 개선 등의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노길수(2020)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한국사람이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마찰요인에 대해서 유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하나원 교육과정과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의 요구, 지역적응센터 업무 확대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이종아(2020)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경제적·사회적·상징적, 문화적 자원의 상태가 탈북과 이동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국내 입국 당시에는 북한에서 보유한 자원들과 이동과정에서 변화된 자원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상실되고 남아있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정착하면서 어떤 기존의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새롭게 자원을 형성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북한에서 형성한 모든 형태의 자원은 탈북과정과 국내에 입국하면서 대부분 상실되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국내에 정착해 새로운 자원을 형성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강한 삶의 의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탈북민 국내정착과 관련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는 탈북민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나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최근 선행연구 전체가 연구방법에 있어서 심층면접, 사례 연구, 생애사 연구 등 대체로 사례중심의 질적 연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탈북민의 국내정착이 재북시절 부터 국내입국과 거주에 이르기까지 시간흐름의 연장선과 개인의 특별한 체험이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탈북민 국내정착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인 것은 상기 논문의 모든 연구대상이 전부 특별한 사례나 특정계층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탈북민 일반에게 적용하기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사례중심 질적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 국내정착과 관련한 특정사례 중심의 연구가 아닌 탈북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공통적 사건과 사례, 일반적 경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적합한 탈북민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포괄적 개념 설정과 다각적인 코딩 작업, 중심현상과 다양한 상황조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탈북민 국내정착과 관련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개념과 분석의 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3 장 연 구 방 법

제 1 절 근 거 이 론 적 용

1) 개 요

근거이론 방법론은 특정주제에 대해 연구가 부족하고 개인의 행동변이와 집단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동범위를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사회심리학자인 G. H. Mead가 창안하였고 그의 제자 H. Blumer가 발전시킨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nism)이라는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2020, 고삼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서로간의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인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송경옥, 2021).

Shin, Cho, & Yang (2008)에 의하면 Mead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두 가지 가정 하에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유기체는 생물학적 유약함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집단속에서 협동해야 한다는 점과 인간이라는 유기체들 간의 유기적 협동을 위하여 생존이나 적응을 촉진시키는 행위들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정 하에 개인과 사회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생성되고 지속되는가를 설명하였다(이성순, 2019: 15에서 재인용).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경험 방식과 사회적 구조에 부여하는 의미와 내용 그리고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가 독특한 상황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하여 Glaser와 Strauss는 타인의 세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근거이론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Shin et. al, 2008 ; 이성순 2019: 15에서 재인용). 이후 Strauss와 Corbin이 공동으로 근거이론 방법론을 구체화 하였다.

Strauss & Corbin(1998)에 의하면 근거이론은 연구 중인 행동이나 체계

를 서술하고 설명하며 이를 개념화하고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개발하는 방법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용하는 목적은 연구의 실체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근거하지만 사회·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생성하여 인간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와 같이 근거이론 방법론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고 실증적인 이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즉 근거이론이란 현실에서 존재하는 사회현상으로부터 연구에 착수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적합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통한 행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정의한다(John W. Creswell/Jo, Chung, Kim, & Kwon, 2010: 98).

근거이론의 특성으로는 첫째, 과정에 기초하여 명확한 단계와 국면을 갖고 둘째, 현상에서 행동과 변화를 유추할 수 있으며 셋째, 추상적이지만 개념과의 관계적 진술을 통해 서술적 자료를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이론은 복잡하고 숨겨진 과정을 확인·분석하는데 적합하고 현상의 실체를 표현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이성순, 2019).

이와같이 근거이론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전개과정과 다양한 방법론 연구가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근거이론과 관련한 연구는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에 의하여 정립된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2) 연구절차

근거이론 연구의 절차 및 순서는 Strauss와 Corbin에 의하여 이미 정립이 되어 있고 본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첫 번째로, 근거이론 방법이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인지 결정해야 한다.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관한 특정한 지식과 논리적

들을 가지고 현상의 실제적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Strauss & Corbin(1998)에 의하면 현상은 연구참여자가 다른 사람들이나 주위 환경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이 그들의 의식이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왜 그러한가에 관해 관심이 있는 대상을 말한다.

두 번째로, 연구할 과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연구의 초기단계에 근거 이론 방법의 예비 연구과정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예비과정을 미리 검증하여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연구 승인을 받는 것이다. IRB 및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사항과 가이드 내용에 입각한 연구절차를 준수하고 난 후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연구목적과 진행방법을 알리고 연구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료수집 이후 원 자료의 처리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다.

네 번째로, 이론적 표본 추출을 수행해야 한다. ‘이론적 표본추출’이란 연구자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다른 자료수집 표본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Strauss & Corbin, 201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인데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심층면접이나 인터뷰 등이 주로 활용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포화의 원칙에 따라 반복적 비교 및 분석을 지속하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초기 단계에서는 연구문제, 연구 환경, 예비연구결과, 문헌조사결과, 연구자의 경험 등을 토대로 기초적인 자료수집 대상이 선정된다. 자료수집의 대상은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이 아니라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섯 번째, 코딩하기이다. 수집 자료의 내용을 해체하여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는 개방코딩을 먼저 진행하고 생성된 범주들을 바탕으로 축 코딩과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코딩작업은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 선택코딩을 수행하고 이론을 도출한다. Strauss & Corbin(1998)

에 의하면 선택코딩을 통하여 핵심범주를 선택하여 다른 범주들과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범주들을 연결시켜 이론을 통합한다. 또한 ‘이야기 윤곽’을 구성하게 되는데 개방코딩과 축 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통합하는 이야기로 서술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론을 생성하게 된다고 한다.

일곱 번째, 도출된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다. 개방코딩과 축 코딩에서 생성된 개념 및 범주, 선택코딩에서 도출된 이론을 원 자료와 비교하여 의미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며 기존이론이나 선행연구와의 대조 등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Strauss & Corbin, 2014). 근거이론 방법으로 생성된 이론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연구참여자에게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현상에 대한 기술이 정확한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근거이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 시에 연구절차에 의한 순서로 기술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의도에 따라 순서를 바꾸거나 단계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절차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3) 주요 구성요소 및 특성

여기서도 Strauss &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론의 주요내용을 연구자의 학문적 이해수준에서 서술하였다.

첫 번째, 연구자의 학문적 민감성이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에서 미묘한 어감, 단어가 내포하고 암시하는 중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능력을 뜻한다(유기웅 외, 2012).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자의 중요한 소양 가운데 하나로서 연구자는 학문적 민감성을 키우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 소유와 다양한 연구자료, 이론에 정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론적 표본 추출이다.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연구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14).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 자료수집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근거이론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 주로 인터뷰나 심층면접에 의한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입각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과정, 사례 등을 탐구하게 된다. 충분한 연구자료 수집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수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포화’(Glaser, 1978) 라고 부른다. 연구자는 모든 기초자료를 단시간에 수집하여 일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일차적인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수집할 자료를 결정하고 그 다음 과정도 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전 과정이 연결되어 연구자가 개념과 범주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정리하여 점차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 번째, 반복적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다시 현장에 나가 연구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는 모든 기초자료가 수집된 후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각각의 자료를 종합하여 전체의 틀에서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 비교를 통한 분석이라고 한다(Strauss & Corbin, 1990). 이를 통해 귀납적으로 접근하고 각각의 개념과 범주를 형성하여 각 개념이나 범주마다 유사점과 차이점, 연관성 등에 대하여 반복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 반복적인 비교를 통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좀 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범주를 추출하는 것이다.

네 번째, 개방코딩이다. 유사개념들을 모아서 최초 범주화를 시키는 것으로 특정 현상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정하고 그 속성과 의미수준을 수집된 자료 내에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모든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개방하고 해체한 다음 상호 검토와 비교를 통해 유사한 의미의 개념들을 범주화 한다. 이 단계가 근거이론 분석의 시작이다. 주로 줄 단위 분석과 메모 방법을 사용하여 범주화 작업을 하게 된다. 줄 단위 분석은 자료수집 시 전사한 자료를 줄 단위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상적인 의미로 개념화 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메모는 줄 단위 분석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통해 흩어져 있는 원 자료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다. 범주화 작업은 연구자

가 줄 단위 분석과 메모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다수의 개념들을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는 범주로 명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범주란 원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통칭하는데, 특정한 현상으로 표현되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즉, 범주화 작업은 녹취록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묶어서 대표화를 하고 이렇게 모아진 복수의 하위범주들을 통합하여 다시 상위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상위범주는 하위범주의 현상과 의미를 대표하는 상위개념이며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모두 원 자료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에 사용되는 단어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섯 번째, ‘축 코딩’이다.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다시 조합하여 패러다임이라는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며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각각의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가를 보여준다 (Strauss & Corbin, 1990). ‘패러다임’이란 범주들과 현상들 사이에 미묘하고 내재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조직적인 도식의 틀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무엇을’에 관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중심현상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패러다임은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구성된다(기영화·김승현·김남숙, 2013).

Strauss와 Corbin은 패러다임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심현상은 특정한 사례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현상을 말한다.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이 발생이나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일을 말하고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적 조건을 의미한다.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들이고 작용/상호작용은 중심적 현상, 문제, 상황을 일상적 혹은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이것들에 의해 개별 상황에 반응하여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패러다임에 있어 유의할 점은 패러다임이 연구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과

정이 아니라 연구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이고 패러다임 모형은 다양한 모양의 도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심현상은 연구문제 및 목적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종의 핵심현상이고 나머지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들 모두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 ‘선택코딩’이다.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핵심범주를 선택하여 다른 범주들과의 정교한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범주들을 연결시켜 이론을 도출하고 통합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 코딩으로부터 생성된 개념이나 범주보다 더 상위의 추상적 범주로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통합의 과정은 핵심범주 선정, 이야기 윤곽 만들기, 그림/표 작성 등이 있다.

일곱 번째가 과정분석인데 축 코딩 단계에서 도출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중심현상의 과정과 구조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이 어떠한 순서와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마지막 여덟 번째가 ‘유형 분석’이다. 자료의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수집된 근거자료와 반복적으로 비교한다. 그리고 각 범주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유형들을 분석하여 정형화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작업은 선택코딩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을 탐색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새로운 분야나 특정사례를 탐색하는 데 적합하며 자료분석 절차에 근거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반복적 비교와 포화의 원칙,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엄격하고 논리적인 연구절차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거이론 방법은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복잡한 연구과정으로부터 이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연구자 외에 제3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Strauss 와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선택한 것은 이와 같은 장점과 제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탈북민의 국내 정착 과정의 일반적 사례에 대한 실체적 이론의 개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은 대상자들이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현상을 경험하였는지와 인터뷰에 장시간 참여하고 연구자 필요시에 추가적인 인터뷰가 가능한지이다(임항아, 2020). 그밖에도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 소양과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진솔함을 소유하고 있는 지 등이 고려 대상이다. 또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자와의 심리적 유대감, 즉 ‘라포’³⁰⁾를 형성할 수 있는 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집단을 선별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질적 연구의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적절성’과 ‘충분성’이라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적절성’은 연구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충분성’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 까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지은, 2015).

본 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는 국내거주 탈북민 15명을 선정하여 설문과 심층면접, 음성 및 영상통화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알고 있는 국내거주 탈북민 인맥 중에서 위에서 기술한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구성하였다. 15명의 참여자 모두 연구자와 직·간접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연구 참여를 수락하였고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연구에 임하였다. 연구자가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탈북민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중에서 선정한 15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신상이나 탈북과정, 국내에서의 정착과정 등을 이미 많은 부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도 숨기는 것 없이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마도 기존의 친분관계

30) 라포(rapport)란 ‘마음의 유대’란 뜻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임

가 없었더라면 연구참여자 구성과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의 직업적 배경과 기존의 신뢰관계가 연구참여자를 구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15명중 9명은 연구자가 기존에 알고 있는 탈북민 중에서 비교적 친밀한 인원이고 나머지 6명은 간접적인 친분을 유지했던 인원들이다. 총 15명 중 남성 4명, 여성 11명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연구참여자 기본사항³¹⁾

사례	성별	연령	현재 직업	탈북시기	출신지역
A	남	57	무 직	2004	평 양
B	남	51	공 무 원	1996	황 해 도
C	여	41	주 부	2010	함경북도
D	여	52	프리랜서	2002	함경북도
E	여	55	자 영 업	2003	함경북도
F	여	57	정규직(건축)	2005	평안남도
G	여	37	자 영 업	2009	평 양
H	여	87	무 직	2002	황해북도
J	여	31	개인사업	2010	함경북도
K	여	48	요양보호사	2001	함경북도
L	여	45	식당 직원	1999	함경북도
M	여	52	공 무 원	1996	함경북도
N	여	38	정 규 직	2019	평안남도
O	남	28	정 규 직	2014	함경북도
P	남	32	프리랜서	2014	양 강 도
계	15명 (여:11, 남:4)		50대이상 : 7 , 40대 이하 : 4		

출처: 연구자 정리

연구참여자는 가능한 지역별 · 연령별 · 정착기간별로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추가적인 인원 선정도 가능하였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근거이론

31)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 구체내용 생략.

연구기법에서 강조하는 포화상태의 자료수집이 충분히 달성 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탈북민과 관련한 연구자의 오랜 업무 경험과 참여자들의 협조적인 태도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탈북민은 탈북동기, 탈북 및 이동경로, 북한과 한국에 대한 인식, 사회주의 습성과 사고방식 등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범주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격, 습관, 의지, 능력과 소양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남녀 성별, 세대, 국내정착 기간 등에 따라서도 일정한 경향성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 3 절 연구자

연구자는 지난 20여년 넘는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내에서 수많은 탈북민을 접촉한 경험이 있고 또한 중국에서는 그들과 몇 개월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밀하게 관찰한 경험도 있었다. 따라서 탈북민의 공통적인 사고방식과 탈북과정, 탈북동기, 국내정착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환이나 난관 등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거나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특별한 경험이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탈북민과의 ‘라포’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의 정확한 진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숨겨진 마음의 이면과 배경까지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친분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 참여자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의사표시와 연구자와의 인간적 신뢰를 어렵지 않게 형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은 질적 연구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연구자의 학문적 감수성과 참여자들과의 신뢰관계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 4 절 연구 및 자료수집 과정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질문은 ‘이들은 왜, 어떻게 탈북을 해서 국내로 오게 되었는가?’ 와 ‘국내에서의 정착과정은 어떠하며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정착과정을 대표하는 중심현상과 성공과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월 ~ 8월까지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사적 만남이 금지되어 가용한 일정과 장소, 시간에 틈틈이 사전 설문 작성과 심층면접, 전화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업무와 관련한 과거의 참여관찰 경험도 연구에 참고하였다. 사전 설문지 각각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심층면담이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총 소요시간은 대상자 개인별 평균 3~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1회의 면담으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충분히 확인하였다.

본 연구 참여의 자유의사를 확인하였고 연구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내용의 개인적 민감성으로 인하여 연구과정에서 개인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시킨 후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대상자 15명중 9명은 연구자와 기존에 친분관계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부반응이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나머지 6명은 특정 질문에 가끔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교적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1) 설문조사 (*심층면접 이전 사전 배포)

연구조사 과정에서 설문은 조사 목적에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해 조사의 결론에 도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설문지 작성 시에는 필요한 정보와 종류, 측정방법, 분석의 내용과 방법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채서일·김주영, 2016).

이와 같은 설문과정은 연구조사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부분으로 설문의 세부항목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작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사용의 목적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설문지에 나오는 단어, 구절 등의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의미들을 공유하는 데 있다.

설문지를 구조화 하는데 사용하는 2가지 중요한 기술은 설문지를 계획하는 것과 예비조사를 하는 것이다. 설문지를 계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연구 목적과 관련이 있는 질문항목을 만드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따른 적절하고 검증된 질문, 그리고 응답 형태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도교수와 상의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질문을 구체화시키고 구조화한 질문지를 먼저 연구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15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심층면접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하였지만 심층면접은 반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을 하였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의 감정, 생각, 의도 등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연구자의 역량이 요구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김영천(2017)은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심리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 하고 연구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력을 가져야 하며 연구참여자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공감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은 사회현상과 인간의 행위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

며 그들의 삶과 경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 자기성찰로 인한 내적 성장과 치유의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송경옥, 2021).

심층면접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의식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감정이나 욕구가 드러나게 되고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하기 때문에 정성적 유형의 조사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위해서는 내실있는 대화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비 구조화’³²⁾ 또는 ‘반 구조화된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시 형식을 배제하자는 것이지 면접 장소와 시간, 대화방법 등 사전 계획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심층면접에서는 미리 정해진 일련의 질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돌발적인 답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기민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면접과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구문제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면접상황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심층면접 과정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출해 내어야 하며 면접상황의 가변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이란 심층면접 이전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면담 중의 가변성과 융통성을 일부 배제한 면담 형식으로 정해진 면담순서로 진행하면서도 맥락에 필요한 개방형 질문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와의 대화 분위기를 원만하게 유도하고 참여자의 무의식적 반응이나 심층적인 내용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질문내용과 진행 방식에 따라 면담 결과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면담 순서지에 의도적으로 통제된 질문들을 반영하면 대화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참여자들과의 기존 친분으로 인하여 만남 약속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와 참여자의 가용일정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심층면접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먼저 조용하고 분위기가 차분한 카페나 식당의 독립된 공간을 미리 선정하

32) 연구주제만을 염두에 두고 아무 것도 사전에 정하지 않는 면접

여 외적 요인으로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가벼운 이야기와 함께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배포하여 회수하였거나 현장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 갔다. 상호대화 형식이었지만 연구자는 질문 위주, 참여자는 답변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연구주제와 관계없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 받으며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심층면접 목적은 대부분 달성하였다.

사전에 녹취와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녹취 내용을 연구자도 전사하였지만 녹취파일을 연구참여자에게 보내주고 참여자 본인에게도 전사를 부탁하여 서로가 같은 의미로 대화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로의 전사자료 중 단어나 의미가 일치되지 않은 것은 전화면접을 통하여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호 대화내용에 대한 일방적 왜곡이나 오해가 없는 심층면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표 3-2〉반 구조화된 면담수행 5단계

1단계	면담 실시전 준비 단계
2단계	초기 접촉 단계
3단계	오리엔테이션 단계
4단계	주요 단계 (면담의 핵심, 분석을 위한 경험적 초점)
5단계	종결단계

출처 : 임향아, 2020

심층면접시 연구자의 업무적 지식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고 숙지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가 면접 목적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구자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참여자에 대한 신상내용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연구자는 엄격한 윤리적 입장을 고수하고 참여자의 요구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넷째, 연구 목적에 너무 국한해서 경직된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고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관련되는 주제를 항상 의식해야 한다.

이외에도 심층면접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라포’ 형성인데 라포가 형성

되면 인간적 호감과 상호 신뢰감이 생기고 깊은 마음 속 사연과 내막까지 밖으로 드러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과정 또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심층면접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3) 전화면접

전화면접은 사전에 조율된 일정에 맞추어 연구원이 참여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대화하는 면접법으로 위의 심층면접법에 비해 학술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수집 방법은 아니다. 이러한 전화면접은 주로 여론조사나 단편적인 의견 확인 등에 주로 사용되는 조사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연구자 주관의 개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태도나 표정 등 비언어적 메시지를 알기 힘들다는 것, 사전에 선정한 연구참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전화가 도중에 차단될 우려도 있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보조적인 수집방법으로 전화면접을 활용하였다.

전화면접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양해가 되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주제에 한정하여 대화를 진행하였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지를 확인하고 전화면접을 수행하였다. 기존에 직·간접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응답 가능성은 거의 배제되었다.

4)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상황을 직접 관찰하는 것을 의

미하지만 관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체계적인 관찰방법은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하는 관찰 대상과 내용을 미리 정하고 연구자 나름의 연구기준을 가지고서 관찰을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참여 관찰은 질적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의 한 유형으로 특히 인류학, 사회학, 인적 지리학 및 사회학, 심리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 방법의 목적은 대개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특정 문화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의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해당 환경의 개인들과 그들의 관행을 체험하고 친밀함과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방법이다. 참여 관찰에서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과 봉사정신은 연구 조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상황조건을 형성한다(Mason, 1996).

Howell (1972)에 따르면 참여관찰 대부분 연구의 일반적 순서는 먼저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사람들에게 연구자의 존재를 각인시킨 후에 그 다음 현장에 참여한다. 그 다음으로 관찰 데이터를 기록하고 수집된 정보를 선별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 연구자는 과거에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에서 탈북민들과 최소 일 주일에서 최대 몇 개월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참여관찰에 준하는 경험을 한 바가 있다. 그 당시에 같이 생활했던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동기, 경로, 방법 등을 알게 되었고 사회주의 사고방식과 문화, 습성 등을 체득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당연히 본 연구수행에 있어 과거 연구자의 참여관찰 경험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 5 절 자 료 분 석

심층면접에서의 질문과 답변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녹음하거나 기록해서 필사본 형태로 작성하였고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의 연구절차를 준용하였다. 근거이론은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알려진 연구가 부족하거나 기존의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연구방법이다.

특히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특정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개념과 이론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취한다(전명희, 2012).

본 연구는 근거이론에 입각하여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의 새로운 사회와 체제에 적응이라는 특수한 현상을 규명하고 정착과정을 실제 이론으로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시작되고(Creswell, 2016)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Glaser & Strauss, 1967)에 의하여 수집자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한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엄격성과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에 있어서 Denzin(1978)이 제안한 자료의 삼각화(triangulation)를 충족하기 위해 심층면접, 관찰조사, 관련문헌 확인, 그리고 추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수집 자료가 풍부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적 연구가 가능한 동료 1인(보조연구자1)과 코딩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밀 검토를 통해 개인적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검증하였으며 1차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여 탈북민 출신 전문가(보조연구자2)에게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추가 검증과정도 진행하였다.

1) 개방코딩 (Open Coding)

개방코딩이란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개방하고 해체와 검토, 비교 등을 통하여 개념을 형성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연구절차에 입각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하여 전사한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개념을 발견하고 개념과 속성, 차원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로 대조하였다. 그런 다음 개념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모아 추상성이 높은 범주로 묶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개방하고 해체해 가면서 사건과 사건, 사건과 개념을 비교하게 되는데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일종의 경향성이며 이러한 경향들이 한 범주를 구성하는 대표적 속성과 연관된 이름을 부여하였다.

개방코딩 과정에서 나타난 하위의 범주들을 한 단계 더 추상화하여 상위범주들로 명명하고 이들이 다른 범주들과 어떻게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여 중심현상, 인과적 요인, 중재적 요인, 상호작용 및 전략, 결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을 설정하여 상호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개념, 범주, 상위 범주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탈북민의 국내정착 과정의 다양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론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이들은 왜, 어떻게 탈북을 해서 국내로 오게 되었는가?’와 ‘국내에서의 정착과정은 어떠한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가?’, ‘국내정착의 과정에서의 중심적 요인과 정착 성패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질문과 반복적 비교를 하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축 코딩 (Axial Coding)

축 코딩은 개방코딩에서 생겨난 범주들을 패러다임이라는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축 코딩을 하는 목적은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관시키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축 코딩에서는 근거 이론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인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과 중심현상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과정 분석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와 과정을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을 통하여 중심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도출하였다.

축 코딩에 의하여 패러다임 범주 분석이 실시되는데 여기에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통해

현상과 연관된 문제와 사건, 쟁점이 생겨나고 일어나는지 상황을 파악하게 해준다(고삼곤, 2020).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정은 어떠하며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중심현상이 되며 이러한 연구 질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범주가 인과적 조건이 된다.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축 코딩에서 도출된 각각의 상황조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한다.

또한 중심현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맥락적 조건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이라는 것이다. 중심현상에 더욱 구체적으로 작용하도록 역할을 하는 요인은 중재적 조건이다. 작용/상호작용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조절하기 위해 하게 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과정분석’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살펴보고 시간의 경과와 중재적·맥락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절차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정분석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단계는 ‘개인적 생존’, 제2단계는 ‘사회적 적응’, 제3단계는 ‘대한민국 동화’이다. 세부내용은 제4장 연구 분석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 코딩을 거쳐 더 높은 추상적 수준으로 발전된 범주들을 이론의 형태로 갖추기 위해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선택코딩에서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를 도출하여야 한다.

핵심범주는 다른 범주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포괄적인 개념으

로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연구인지 그 실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정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요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 끝에 핵심범주를 생성할 수 있었다. 이어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구체화하여 이야기 윤곽을 만들고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 진술을 통해 이론을 더욱 정교화 하고 유형을 분석하였다.

유형분석은 중심현상을 토대로 탈북민 정착과정의 모습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명개척형’, ‘현실안주형’, ‘회피형’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후 상황모형 제시를 통해 중심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상황조건과 작용/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흐름 요약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절차와 흐름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 15명에 대하여 사전 설문조사와 참여관찰, 문서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 이후에는 바로 전사하여 주제별 코딩을 실시하며 1차 분석을 하였다.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을 통하여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하였다. 심층면담과 전화면접, 과거와 최근의 참여관찰을 통하여 탈북민 국내정착 과정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정착과정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특징을 도출하였다.

한편 연구메모를 작성하면서 영향요소와 이에 대한 필요한 질문을 추가 정리하고 연구자 자신의 가설적인 예상 상황을 상정하면서 연구를 발전시키고 다음 면접과 관찰조사에 활용하였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전 자료와 비교하면서 순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연구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탈북민 국내정착 과정에 대한 자료를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집한 이후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에서 탈북민 정착과정에 대한 모습과 이에 대한 다양한 상황요인 등을 범주화하였다. 기본 개념과 하위개념, 상위개념 간의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범주 수준으로 수정, 보완, 발전시켰으며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독과 숙독을 반복하면서 보다 정확한 개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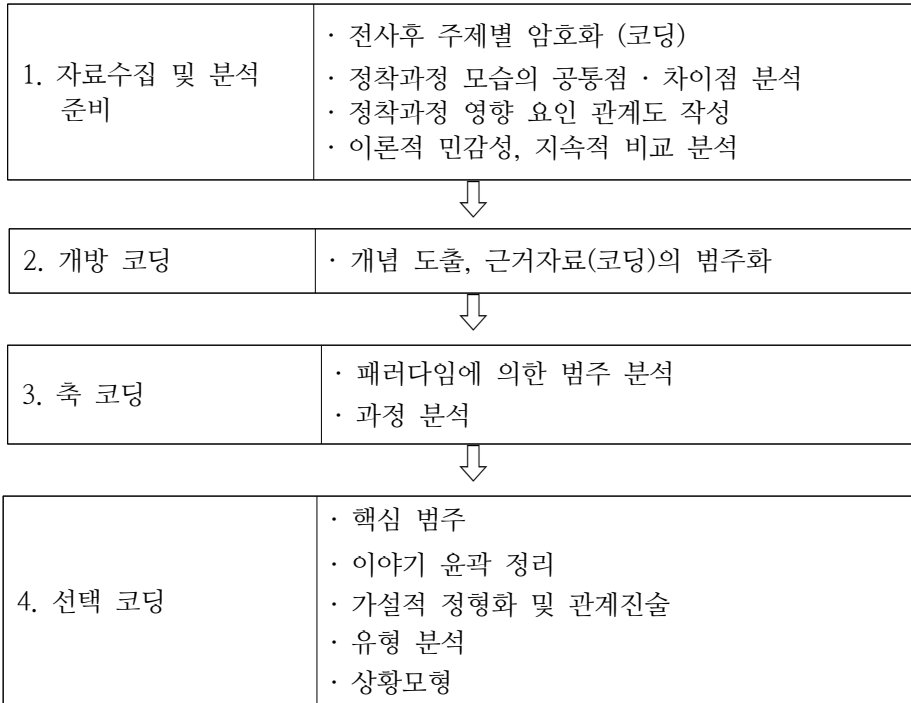
이후 축 코딩을 통하여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중심현상에 대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가 어떻게 상호적인 연관을 맺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과정분석은 자료에서 작용/상호 작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심현상과 관련되어 어떻게 단계별로 변화하는지 구분하고자 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핵심범주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야기 윤곽을 구성함으로써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으며 연관성을 찾아 기술하였다. 또한 탈북민 정착과정 모습의 중심현상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적 정형화를 시도하였고 가설적 정형화에 대한 관계진술을 통하여 맥락적 상황들과 중재적 상황들 간에 유형분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중심현상과 관련한 유형을 3가지로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중심현상과 여러 상황적 조건들이 미시적,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연관되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준비로부터 선택 코딩에 이르기까지 분석절차와 흐름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분석절차와 흐름 모형도



출처 : 고삼곤, 2020

제 4 장 연구 분석 과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1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화조사를 실시하였고 탈북에서부터 국내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15명 중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연구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3명에 대하여는 참여관찰을 병행하여 정착 성공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과정은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에 입각하여 개방코딩과 축 코딩 수행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제 1 절 개방코딩 수행

개방코딩은 수집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여 범주화하는 단계이다. 특히 코딩은 전사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어 가면서 특징 있는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유사한 코딩들을 범주화하는 것이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작업을 위해 심층면담에서 수집하여 전사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후 동료인 보조연구자 1의 코딩결과와 비교분석 과정을 거쳤고 탈북민 출신 전문가인 보조연구자2의 자문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개방코딩을 한 결과 총 82개의 하위 범주와 17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부 코딩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코딩결과와 패러다임 요소

패러다임	상위범주	하위범주(개념)
인과적 조건	한국 이주 선택	중국 왕래, 중국 거주, 금전욕, 위험 감수, 가족 차별, 북한 송환
	대한민국 동경	한국 발전상, 자유민주주의, 한류문화
	민족 동질감	역사 공유, 언어와 문자 공유, 남한 연고, 이산가족 상봉
중재적 조건	정착지원 제도	정착금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의료/복지 지원, 거주보호 지원
	차별의식	북한사람 인식, 이방인 느낌, 동정심, 적대감,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소외감. 따돌림
	친목단체 활동	동호회 가입, 단체 소속감, 탈북민 단체, 봉사 단체, 종교 활동
중심 현상	차이점/제한점 극복하기	말투 교정, 민주주의 이해, 자본주의 이해, 국내외 여행, 한국 TV 시청, 역사 재인식
맥락적 조건	가족 동반	실종/사망 처리, 가족 북한잔류, 단신 탈북, 단신 입국, 재북가족 연락
	탈북동기/과정	이념성향, 범죄 연루, 배고픔, 교화소/관리소, 인권탄압, 가족 탈북, 자유 갈망, 제3국 경유, 제3국 거주, 공안 단속, 인신매매
	재북시절 지위	출신성분, 경제수준, 직업
작용 / 상호작용 전략	진학 활동	특례입학, 학업충실, 교우관계 동아리 활동, 적성
	취업 노력	직업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취업 및 직장알선
	문화 적응	한국사람 특징 파악, 법규와 제도 차이, 한국사회 통념과 예절, 한국 사회문화적 가치
	경제력 확보	물질만능 사회, 자본주의, 빈부차이, 사치와 낭비, 중산층 이상 생활수준
결 과	한국민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통일 대한민국 지향, 차별감/소외감 미인식
	중간자 인식	남북한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 남북한 통합시 중개자 역할, 북한에 대한 향수
	국외 이주	제3국 이민/망명, 월북/귀환,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출처: 연구자가 도표화 작성

1) 한국이주 선택 (상위범주) - 중국 왕래, 중국 거주, 금전욕, 위험 감수, 가족 처벌, 북한 송환 (하위범주)

북·중 접경지인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등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물물교환 장사를 하거나 기아로 인한 식량을 구할 목적으로 중국 변방지역을 왕래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중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 복귀하지 못할 사정으로 중국에 장기간 거주하게 된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방정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중국에 왕래하거나 거주하는 북한인들은 금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그래서 가족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시적이거나 장기적 또는 영구 탈북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탈북 이후 중국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연락을 하며 금전적 이익이나 식량을 구하는 활동을 하지만 중국에서 단속에 걸릴 경우 북한 송환이라는 위험성으로 인해 결국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다

2) 대한민국 동경(상위) - 한국 발전상, 자유민주주의, 한류문화 (하위)

북한에 거주할 때는 한국의 발전상을 어렵פות이 소문으로만 전해 듣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수 만명의 탈북자들은 중국에 거주하고 부터는 비로소 한국의 엄청난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구체적으로 인지한다. 이 때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의심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또한 중국에 널리 퍼져있는 한국 상품과 한류 문화는 의심단계와 가치관의 혼란을 넘어 결국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수준까지 이른다. 최근에는 중국을 넘어 북한 내까지 한류가 확산되어 평양과 북·중 접경지의 20-30대 젊은 층과 학생층까지 한국에 우호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민족 동질감 (상위) - 역사 공유, 언어와 문자 공유, 남한 연고, 이산가족 상봉 (하위)

남북한이 70여년 넘게 분단되어 있지만 한국민이든 북한주민이든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은 매우 강하다. 그것은 분단 이전의 같은 역사와 같은 언어, 문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현 실적 이유는 비록 왕래는 못하지만 각기 남북한에 연고를 두고 있기도 한 이산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이유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은 분단의 기간과는 무관하게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또한 이러한 동족의식은 향후의 통일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4) 가족 동반 (상위) - 실종/사망 처리, 가족 북한잔류, 단신 탈북, 단신 입국, 재북가족 연락 (하위)

탈북민의 경우 대부분 북한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하여 공안기관에 뇌물 등을 주고 행방불명이나 사망 처리를 하게 된다. 탈북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족이 처벌을 받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가족 모두가 탈북을 하면 좋지만 북한은 감시와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탈북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외 공관에서 가족단위 탈북이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신 탈북을 하고 그 후에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을 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설득과 지원을 통하여 가족 단위의 순차 탈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불가피한 이유로 탈북을 하지 않고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때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북한의 경제수준의 차이가 워낙 커서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동반 여부가 탈북민의 국내 정착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5) 탈북동기 / 과정 (상위) - 이념성향, 범죄 연루, 배고픔, 교화소/관리소, 인권탄압, 가족 탈북, 자유 갈망, 제3국 경유, 제3국 거주, 공안 단속, 인신매매 (하위)

탈북민들의 탈북동기는 다양하다, 과거 고난의 행군³³⁾시절에는 기아와 배고픔의 이유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 보다는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와 자유 갈망, 한류문화 심취 등의 이념적인 이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공통적인 것은 범죄 연루나 억울한 누명으로 가혹한 처벌이 두려워 탈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 거주하면서 탈북을 미리 계획하는 주민들은 주로 브로커를 이용하게 되는데 북·중 국경까지의 안내와 월경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중국 지역에서 브로커를 활용해 이동하게 된다.

또한 탈북민중에는 다급한 사유로 인해 우발적으로 탈북하게 되어 브로커 없이 단독으로 이동하거나 월경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중국으로 탈북 후 대부분 중국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게 되는데 이 때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인신매매나 극심한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들은 신분을 감추고 살거나 가짜 중국호구를 만들어 살기도 하는데 주변 신고로 인한 중국 공안의 단속시 북한 송환의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에도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탈북자로 단속이 되는 경우 중국 변방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북한에 단체로 송환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북한에 송환되면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노동단련대³⁴⁾, 재범 이상 교화소³⁵⁾로 보내져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기

33)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한 구호로 원래는 1938년 말 ~ 1939년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 빨치산이 만주에서 일본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혹한과 굶주림을 겪으며 100여일간 행군한데서 유래

34) 북한 당국이 접경지에서 운영하는 단기 수용시설로 구타와 영양실조, 강제노동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알려짐

도 하였으나 지금은 초범부터 교화소로 보내지고 처벌도 훨씬 강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중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태국이나 베트남 등의 중국 국경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도 브로커를 활용하게 된다. 주로 기차나 차량을 이용하여 중국 내륙을 경유하게 되고 국경지역에 도착해서 월경을 하고 동남아 지역의 국가별 보호소에 입소하게 된다. 이후 탈북민들은 현지 보호소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대사관과 협조된 절차에 의해서 국내로 입국한다.

6) 재북시절 지위 (상위범주) - 출신성분, 경제수준, 직업 (하위범주)

북한에 살면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출신성분이다, 김일성 가계와 관련된 백두혈통³⁶⁾과의 근접성, 김일성과의 항일 빨치산³⁷⁾ 운동과의 관련성, 그리고 대남 혁명사업 유가족, 전통적 노동자·농민 가계 등이 북한의 핵심 계층을 형성한다. 이들은 주거와 배급, 교육, 직업선택 등에서 국가의 각종 혜택을 받고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당연히 이들이 북한 당·정·군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그로 인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한다. 한마디로 출신성분에 의하여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급사회·불평등 국가체제이다.

35) 북한의 경찰기구인 사회안전성에서 관할하는 특수형무소로 한국의 교도소에 해당

36) 북한에서 김일성 직계 존·비속 가족을 일컫는 말로 김일성이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며 김정일 집권 이후 신격화를 위해 사용 중인 용어

37) 1930년~40년대 중국 북동부 또는 소련 지역에 있던 항일 유격대(동북항일연군)를 일컫는 용어

7)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 (상위) - 말투 교정, 민주주의 이해, 자본주의 이해, 국내외 여행, 한국 TV 시청, 역사 재인식 (하위)

탈북민들의 국내정착의 요체는 결국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이다. 탈북 당시까지의 평생을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체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 시스템과 사회제도에서 살다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습관과 관습을 바꾸어야 하고 국가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 단시간에 가능하기 어렵다. 같은 한글과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용어와 말투에도 익숙하지 않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탈북민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제한사항으로 다가오게 된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통과 환경, 관공서, 문화시설, 쇼핑, 편의시설 등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곧 배우고 익혀서 극복하고 적응해야 하는 제한사항들이다. 이런 제한점들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TV를 시청하고 영화를 보고 한국 역사를 다시 배우고 한국 사람과 어울리고 하면서 제한점들을 하나하나 줄여 나가게 된다.

한국에 정착한다는 것은 주변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광역시도로 시야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전체로 넓혀야 한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여행을 많이 다닌다. 국내 여행은 물론 북한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해외여행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국과 세계를 몸소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느낀다. 탈북민들이 한국생활에서의 무수한 제한점들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정착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8) 정착지원제도 (상위) - 정착금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의료/복지 지원, 거주보호 지원 (하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탈북민이 국내에서 기본적인 생활과 생계유

지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정착금 지원, 주거와 의료·복지 지원, 취업과 교육 지원, 거주지 보호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별도로 탈북민 전담 지원단체인 ‘남북하나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착지원제도는 상위범주이고 상황조건 중의 하나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탈북민 국내정착과정 전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소이다.

9) 차별 의식 (상위) - 북한사람 인식, 이방인 느낌, 동정심, 적대감,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소외감, 따돌림 (하위)

차별이란 나 자신과 타인과의 개인적인 다름이나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한 쪽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 의미이다.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표출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인해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다.

탈북민의 차별의식이란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인식이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 한국민의 문화적인 관습을 오해하는 것, 배려를 동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이거나 지나치게 우호적 감정을 탈북민에게 표출시켜 차별로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별 의식이 느껴질 때 탈북민들은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는다고 느낀다.

차별의식은 어느 사회나 집단에서 존재하는 현상이다. 남북한 동질성도 회복하고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차별성을 장점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탈북민들은 기대한다.

10) 친목단체 활동 (상위) - 동호회 가입, 단체 소속감, 탈북민 단체, 봉사 단체, 종교 활동 (하위)

국내 거주 탈북민들에게 친목단체 활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탈북민들끼리의 친목활동도 필요하지만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사람과의 친목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지역의 각종 동호회에 가입하여 한국 사람들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봉사단체를 통하여 선행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의 탈북민 대상 활동이다. 유독 탈북민의 종교 선택은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을 지원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 북한 내 기독교 지하선교 활동, 국정원 보호센터와 하나원에서의 적극적인 기독교 전도 활동, 그리고 지역 교회에서의 탈북민 지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탈북민들의 친목단체 활동은 대한민국 정착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 확대되어 지역과 국가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으로 확립되기 때문이다.

11) 진학활동 (상위) - 특례입학, 학업충실, 교우관계, 동아리 활동, 적성 (하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중에 교육지원 내용이 별도로 있어 탈북민들의 국내 학교기관 진학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 특히 대학에 특례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학습 능력만 된다면 국내 대학과 전공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일류대학에 보내려는 한국의 교육열을 생각하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한 혜택이다. 게다가 등록금 면제와 특별 장학금 지급까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차별까지 느껴질 정도이다.

문제는 진학 이후이다. 북한과는 다른 교육시스템과 환경, 학업 방식 등의 차이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그만큼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일류대학에 특례입학을 하였지만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제명이나 자퇴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습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턱대고 일류대학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선호전공을 선택한다면 부적응과 시간낭비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진학활동이 중요한 것은 한국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국내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2) 취업 노력 (상위) - 직업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 취업 및 직장알선 (하위)

학업을 마친 탈북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다. 직업을 가져야만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을 갖는 것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진학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 항목이 있다. 탈북민들은 이를 활용하여 직업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고 이와 연관된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지만 국내의 취업 여건이 그들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지원단체나 남북하나재단 등에서도 탈북민 대상의 취업 알선을 하고는 있지만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 또한 아예 정상적인 취업을 포기하고 단기 일용직이나 기초생활 수급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탈북민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3) 사회·문화적 적응 (상위) - 한국사람 특징 파악, 법규와 제도 차이, 한국사회 통념과 예절, 한국 사회문화적 가치 (하위)

남·북한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있어서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차이는 사회·문화 적응의

문제이다. 왜냐 하면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사람들의 생활관 습 등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하고 한국에서의 사회 통념과 기본예절, 사회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원활한 의사소통과 서로간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법규와 제도의 차이에 적응해야 한다. 국내에 정착을 시작한 탈북민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정치·경제적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14) 경제력 확보 (상위) - 물질만능 사회, 자본주의, 빈부차이, 사치와 낭비, 중산층 이상 생활수준 (하위)

어느 국가나 사회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자립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막론하고 결국 경제적 번영을 누리기 위한 체제의 선택인 것이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국내에 정착한 많은 수의 탈북민은 북한에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 탈북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북한과 경제적 여건이 많이 다르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 기본 생계유지는 가능하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기본 생계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정착지원제도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계보장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다.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 성패 여부를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두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한국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관련한 물질만능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유층의 소비를 사치와 낭비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그래서 국내에 정착한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 확보와 자립을 위해 노력한다

15) 한국민 인식 (상위) -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통일 대한민국 지향, 차별감/소외감 미인식 (하위)

국내 정착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탈북민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자신이 한국 정착을 순조롭게 하고 있거나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 동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민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북한 출신이라는 기본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한국 국민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들은 본인이 탈북민이라는 것을 굳이 알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소유하고 있고 남북통일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 국내정착에 성공했거나,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의식이나 소외감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 차별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차별의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 정신적·심리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생활한다.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고 어떤 실패나 좌절이 와도 스스로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

16) 중간자 인식 (상위) - 남북한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 남북한 통합시 중개자 역할, 북한에 대한 향수 (하위)

국내정착 초기이거나 시간이 지나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의 경우이다.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당수의 탈북민이 이에 해당한다. 탈북민이 순조롭게 국내 정착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무수한 제한사항들을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청년기나 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시간적 여유라도 있지

만 기성세대가 되어서 정착하게 되는 경우 그 어려움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하고 북한에서의 오래된 습관과 사고방식이 고착화 되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정착에 순조롭지 못한 기성세대의 탈북민들은 남북한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때로는 고향인 북한에 대한 향수를 진하게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식들에게 희망을 걸고 자식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성공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되는 것을 열망하고 통일 직후 남북한 통합을 위해서 자신들이 한국민과 북한주민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이 되면 실제로 자신들에게 역할이 맡겨지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국내에 정착한 모든 탈북민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들이 남북한의 중간자적 인식을 하고 있다. 단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경향성이나 편향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결국 한국 정착에 대한 태도나 적응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세대 차이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17) 국외 이주 (상위) - 제3국 이민/망명, 월북/귀환,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하위)

국내 정착에 실패한 탈북민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정착을 포기하게 된다. 제3국으로 이민이나 망명을 하거나 심지어는 월북이나 귀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세대 차이로 기인하는 측면보다는 개인의 특별한 성향과 상황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제3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족이나 환멸을 느끼게 돼서이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대부분 현지에 남아 있는 가족 때문일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제3국으로 도피하거나 북한으로 귀환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연히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고 북한으로 돌아가 자의든 타의든 한국을 비방

하는 선전에 동원된다. 이러한 국내 탈북민들의 국외 이주는 그들 자신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의 남북한 통합의 실패이자 정책의 실패, 포용과 수용의 실패이기도 하다. 탈북민의 국외 이주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 2 절 축 코딩 수행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즉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중심 현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 따라 개념과 범주를 엮은 축 코딩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패러다임 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축 코딩은 개방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해체되고 분해되었던 원 자료를 재조합하여 개방 코딩에서 생겨난 범주들을 패러다임이라는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유기웅 외, 2015). 이러한 과정을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구조 분석이라고 한다.

축 코딩 분석 과정을 통하여 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며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를 알 수 있다.

축 코딩에서는 개방 코딩에서 생성된 범주들을 하위 범주와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축(ax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코딩 작업이 한가지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는 데서 생성된다(Strauss & Corbin, 2001)는 것이다. 축 코딩의 분석적 도구인 패러다임 모형 분석을 통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구조적 관계를 도식하였다. 또한 현상의 모습과 영향 요인, 구현 흐름에 따른 범주 간의 관련성을 보이면서 상황의 변화를 확인하여 그 과정을 단계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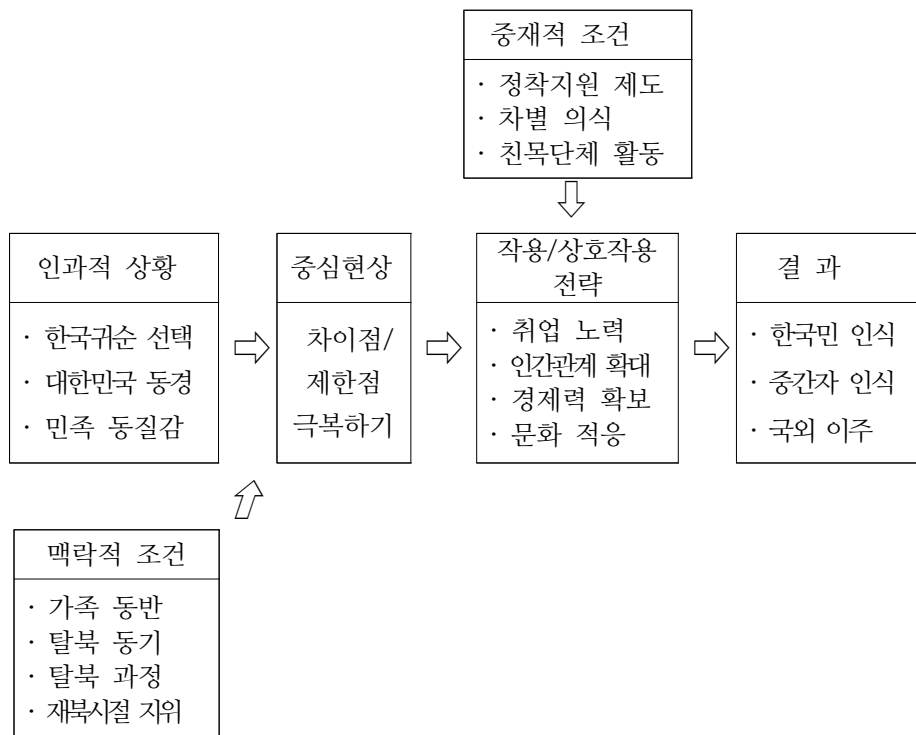
이와 같이 중심현상 범주에 다른 범주를 연관시키는 과정은 패러다임의 구조에 의하여 묘사되고 있다. 근거이론 방법에서의 패러다임이란 범주들

사이에 미묘하고 내재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조직적인 도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고삼곤, 2020).

본 연구의 축 코딩 과정에서도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개념이나 의미가 생성되었을 때는 메모나 전화 면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수정 보완하며 범주간의 관계를 재검토하였고 이를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인 인과적 상황,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조직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축 코딩을 실시하여 도출한 패러다임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 패러다임 모형



출처: 연구자 도출 및 도식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촉발하는 상황으로 연구참여자인 탈북민 15명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으로의 귀순 선택’, ‘대한민국 동경’, ‘민족 동질감’이 인과적 조건으로 범주화 되었다.

탈북 이후 중국에 체류하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망명, 북한으로의 귀환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북한 내 거주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한국사회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 탈북 후 중국 체류시 실제의 한국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모습이 구체화 되고 동경심으로 변하여 한국으로의 귀순을 선택하게 된다. 같은 민족 이라는 동질감이 그 선택의 밑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3가지의 인과적 조건이 한국에서의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 라는 중심현상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이라고만 들었지 한국이나 대한민국을 들어본 일이 없었고 쌀 포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는 걸 봐도 무슨 국제기구나 식량회사 정도로 인식했어요. 남조선이 더 발전되고 잘 사는구나 하는 것은 몰래 유통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막연히 상상만 했었는데 탈북하고 중국에 있을 때 남조선이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는 동경하게 되고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거죠” (사례 A)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인식은 더욱 더 확대되고 있는 데 그것은 한류문화의 급격한 유입 때문이죠. 북쪽 당국에서 무조건 막는다고 열을 내고 있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구요. 오히려 단속을 해야 하는 보위부나 보안서 등에서 유포되는 사례가 훨씬 많고 고위급일수록 더 용이하게 접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아예 대놓고 한국말투와 한국 유행을 흉내 내고 다니는 실정 이지요” (사례 N)

“한국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갈 이유가 없죠. 그래도 같은 핏줄이고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 하여 중국 접경지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도 대부분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은 남한이 동족의 나라, 동포의 나라, 형제의 나라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자신들을 같은 국민의 자격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탈

북을 하든 대부분 한국행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사례 H)

2) 중심현상 : 차이점 / 제한점 극복하기

탈북민의 국내정착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현상으로 파악하였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의·식·주라는 일상생활면에서 성공적인 적응이 국내정착의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탈북민은 외국인과는 달리 국내에 입국 후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이 구비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화가 국내정착 과정에 있어서 최종목적이 된다. 이러한 최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과 한국의 차이점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국 생활에서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라는 중심현상의 하위범주로 ‘말투 교정’,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해’, ‘국내외 여행’, ‘한국 TV 시청’, ‘한국역사 재인식’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모두 차이점과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가슴이 벅찼던 순간은 대한민국이라고 적혀있는 녹색여권을 받을 때였어요.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 살 때 중국 조선족들도 한국여권을 신분상승의 상징물처럼 여기는 것을 보았었고 그래서 한국사람 여권만 보면 그렇게 부럽기만 한 기억이 있었는데 내가 그 대한민국 여권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고 이제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감격이 일면서 그 때부터 진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었던 거 같아요. 쉽지는 않았지요. 말투, 문화, 생활방식, 가치관 등 거의 모두를 바꿔야 했으니까 지금도 진행중이구요.” (사례 E)

“한국에는 일가 친척도 없었고 혼자 탈북하여 입국하였기 때문에 하나원 출소하자마

자 앞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이미 배정된 임대아파트에 들어는 왔지만 생계는 어떻게 해야될지 제대로 살수는 있을지 웬지 무인도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원금과 여러 혜택들이 처음 대한민국에 정착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사례 J)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온지 10년 이상 지난 상태이고 이제 조금 한국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어느 정도 생활기반과 경제적 자립이 생기고 나니까 성공한 한국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탈북민 수준에서는 현재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인데 한국 수준에 맞는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야 완전한 한국사람이 되는 것 같았구요. (사례 E)

중심현상인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는 연령별, 세대별 그리고 탈북시기 별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 국내정착 기간이 오래 될수록 더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요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나이와 성별, 정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착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여성인 C사례가 나이가 가장 많은 H사례, 그리고 탈북시기가 가장 오래된 남성인 B사례 보다 적응수준이 가장 양호하였다. C사례의 경우 연구자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으면 원래 한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한국민으로 생각될 정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이 정착기간이 오래될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연구에 참여한 탈북민 15명의 사례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탈북민을 상대하면서 느낀 공통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라는 중심현상은 탈북민의 국내정착 과정에서 두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명확한 의지와 목적의식을 설정해서 국내 정착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은 그 현상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상황별로 맥락적 조건을 동반하게 된다. 맥락이란 어떤 현상에 속하는 특정한 속성으로서 차원의 범위에 따라 어떤 현상에 속하는 사건들의 위치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 국내 정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가족 동반 여부’, ‘탈북동기/과정’, ‘재북시절 지위’가 범주화 되었는데 이 조건들이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차원의 특수한 상황으로 구분되었다.

각 조건별 하위범주로는 실종과 사망 처리, 가족 북한잔류, 단신탈북과 입국, 재북가족 연락 / 이념성향, 범죄연루, 배고픔, 교화소와 관리소, 인권 유린, 가족 탈북, 자유 갈망, 제3국 경유, 제3국 거주, 공안 단속, 인신매매 / 출신성분, 경제수준, 직업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개인 차원의 서로 다른 속성과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럽게 생각했던 것은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동료 탈북민이었습니다. 같이 오거나 혹은 먼저 오거나 나중에 오거나 하더라도 부모형제 들과 같이 한국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말 못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리 타향 땅이지만 뭐가 무섭겠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그만큼 적응하고 성공하기도 수월할 겁니다” (사례 K)

“옛날처럼 배가 고파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 왔으면 아마 적응하기도 더 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북한에 있을 때처럼 배움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매일 ‘이 밥에 고기국’이니까요. 하지만 나처럼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사람은 한국에서의 기대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서의 성공적 적응은 물론 완전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저처럼 한국을 동경해서 온 탈북민들이 오히려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북한에서 몰래 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한국과 현실의 한국을 비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죠. 후회하지 않아요” (사례 P)

“전 평양에 살다가 아빠가 가자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왔는데 한 때는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평양에 살 때 무역하는 아빠 덕에 남부러운 것 없이 살다가 한국에서는 너무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었구요. 다른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너무 좋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하였지요. 여기서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성공을 하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고요. 그런 결심이 제가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게 하고자 한 가장 큰 힘이였어요” (사례 G)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중심현상과 관련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구조적인 영향 요인으로 인하여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를 중심현상으로 하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활동과 노력과정을 작용/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중재조건으로는 중심현상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로 인식하였고 이를 다시 상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정착지원 제도’, ‘차별의식’, ‘친목단체 활동’ 등이 중재조건으로 파악되었다.

‘정착지원 제도’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차별 의식’은 반대로 상호작용 전략을 방해하는 조건으로, ‘친목단체 활동’은 상황에 따라 촉진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는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정착지원 제도’는 국내에 입국 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하여 하위범주로 도출된 정착금, 주거, 취업, 의료/복지, 거주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제도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정착지원 제도’에 대하여 탈북민들은 일부 불만은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만일 대한민국에 정착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모두 정착에 실패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였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정착지원제도를 마련해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의료지원과 특례입학 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사람들에게

도 없는 대단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나라로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은 탈북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사례 D)

‘차별 의식’은 탈북민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한국사람의 차별적인 인식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사람 인식’, ‘동정심’, ‘적대감’, ‘소외감’, ‘문화 차이’, ‘따돌림’이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차별 의식’을 느끼게 되면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동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즉,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죠. 어쩌면 당연한 것이구요.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든 적대감이든 동정심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 겠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적응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차별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 되려고 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L)

‘친목단체 활동’은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민과 같이 어울리는 단체나 동호회, 종교모임 등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탈북민의 ‘친목단체 활동’은 참여정도와 수준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나는 탈북민 단체 보다는 한국 사람들과의 친목단체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고 동화되기 위해서죠. 그리고 실제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차별을 느끼기도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동포들을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요. 많은 탈북민들이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종교 단체의 친목활동이 탈북민 정착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례 K)

5) 작용 / 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특정하게 인지된 상황들 아래서 현상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상화에 대처하도록 의도되고 고안된 전략들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연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목적을 지니는 목표 지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탈북민이 중심현상인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진학 활동’, ‘취업 노력’, ‘문화 적응’, ‘경제력 확보’로 파악되었다. 탈북민의 대한 진학은 특례입학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다. 본인의 학업능력만 있다면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 학비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탈북민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운영된다.

그러나 탈북민의 취업은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북한과는 다른 직장생활 문화의 차이와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여도 한 직장엔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신만의 특기를 살려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고마웠던 것은 우리 자녀들의 대학입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자녀들을 SKY 같은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 별별 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 학이나 김책 공대 같은 일류 대학을 보내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탈북민 특별전형이 있어서 자신의 학업 능력과 적성에 맞추어서 어느 대학이든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도 누려보지 못하는 특혜 같은 것이지요. 저희 큰 애는 OO대, 작은 애는 OO 대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사례 A)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은 취업이지요. 탈북민이 취업하면 국가에서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어 그런 직장엔 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국가에서 임금을 보조받기 위해 탈북민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이라 연봉이나 근무 조건 등을 따지면 좋은 직장이라 할 수 없고 고용주가 탈북민을 차별하거나 좋지 않은 쪽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용된 탈북민의 상당수가 임시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는 경

우가 다반사입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탈북민 의무고용이 있다고 하는 데 그것이 준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거 같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탈북민이 대기업이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 같은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한국 사람도 쉽지 않은데 우리 탈북민에게는 더욱 어렵지요.” (사례 L)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에 대한 적응이다. 북한과는 정반대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사회 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단기간 동안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심현상인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문화적응이기 때문에 탈북민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형태와 방법으로 상호작용 전략을 시도한다. 아마도 그 노력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경제력 확보’라고 인식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과 성공을 통하여 대한민국 주류사회에 편입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죠. 아마 한국의 유치원생 수준도 안될 것입니다. 제도, 문화, 습관 등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것이 없죠. 제일 어려웠던 것은 언어였어요. 무슨 외국말이 그렇게 많은지 조선말은 조선말인데 못 알아 들췄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은 원래의 고유말을 안쓰고 외래어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영어로 된 말들이 많아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였지요. TV 드라마나 뉴스를 많이 봤고 신문,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일단 말을 이해해야 사회적 문화적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원 같은데서 한국말 교육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필요도 느꼈습니다.” (사례 M)

“한국 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도 돈이 중요한데 자본주의 국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 월급이나 연봉이 얼마인가 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국회의원, 대통령보다 재벌이 최고인거 같더라고요. 북한은 그래도 아직은 돈 보다는 권력인거 같은데. 왜 자본주의겠습니까? 자본, 돈이 최고니까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탈북민들도 일단 돈 많이 벌기, 경제적으로 자립 하는 것이 지상 목표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 O)

6) 결 과

결과는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중심현상이 조절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는 ‘진학 활동’, ‘취업 노력’, ‘문화 적응’, ‘경제력 확보’ 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그 성취도와 수준에 따라 탈북민 자신을 ‘한국민으로 인식’ 하거나 남북한 사이의 ‘중간자로 인식’ 하였고 ‘대한민국 동화 노력’에 실패한 경우 ‘국외 이주’로 귀결되었다.

한국민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개인으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적응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관찰되었다.

중간자적 인식은 국내정착 초기 개인의 생존기반 마련 이후 사회적 적응이 시작되는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존과 적응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도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과도기 단계로서 중간자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개인적, 사회적 요인, 아니면 인위적인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탈북민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례인데 국외로 이주하는 것이다. 국외는 남한과 북한이 아닌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의 제 3국 이주가 대부분이지만 귀북 즉, 북한 복귀 사례도 존재한다. 아마도 북한사람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거나 한국에 살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 제가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같은 민족으로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이 아닐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라고 되어 있으니 북한이 고향인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북한 땅도 언젠가 되찾아 합쳐야 될 대한민국 영토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 세계에 자랑이 되고 모범이 되는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대한민국을 선물한 것을 제일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 기반

도 갖추어 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장사를 통해서 집 장만도 하고 월세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상당한 대한민국 중산층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향이 북한 지역인 서울 사는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죠” (사례 E)

“전 아직 하나원에서 나온지 1년도 되지 않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북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생각해 본적도 없고 그게 나한테 아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는지, 후회 없이 살 수 있겠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북한 사람, 한국 사람 그건 나중에 따져 볼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답게 잘 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사례 N)

“제 주변에는 한국 땅 정착에 실패하고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이지만요. 탈북민의 망명을 받아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나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정착 실패가 이유가 되겠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단순히 한국 정착 실패 보다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더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범죄행위나 북한에서의 회유와 협박 등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북한에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북한이 싫어 탈북한건데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구요.” (사례 B)

“한국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것은 ‘자유’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북한에서 억만금을 준다거나 중앙당 간부를 시켜준다 해도 싫습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세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모두 일말의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지요. 정치적 속박과 강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를 무한정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P)

제 3 절 과정분석 수행

과정분석은 축 코딩 단계에서 도출된 과정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구조의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어떠한 일련의 순서와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총 3단계로 분석하였다. 탈북민 국내 정착 초기에 1단계인 ‘개인적 생존단계’ 생존조건이 구비된 이후에는 2단계인 ‘사회적 적응단계’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는 3단계인 ‘대한민국 동화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개인적 생존 단계

연구참여자 15명을 포함한 일반적인 탈북민은 국내에 입국하기 직전 제 3국에서 중국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태국이나 베트남 지역 등에 대기하게 된다. 이 때 탈북민이 가장 우선하여 고민하는 것은 자신이 무사하게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탈북과 탈북 후 이동 과정에서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이 항상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제 3국에서의 체포와 북송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북한 송환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북한의 조력자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 때문에 북송상황 발생시 자살까지 기도하는 탈북민도 적지 않다. 그만큼 탈북과 이동 과정은 생사가 걸린 생존의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원래 탈북을 엄하게 처리하였지요. 김정일 때는 가끔 선처를 베풀기도 했는데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부터는 국경통제를 세계 강화하였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봉쇄 수준이지요. 탈북자 발견 시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도 하달되었다고 하구요. 그래서 탈북이 더 어렵게 되었고 처벌도 훨씬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죽을 각오로 국경을 넘습니다. 실제 죽기도 하구요. 탈북에 실패해서 죽거나 중국에서 송환되면 어떤 형태로든 죽을 수 있지요. 실제 한국에 올 생각으로 탈북한 것이 아닌

데도 북송이 두려워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례 N)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과하여 태국이나 베트남 등의 비밀 안가에 서 대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낯선 관리인과 바깥과 차단된 수용장소, 정보의 부재 등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또한 차량을 이용한 이동시 혹시 북한 대사관으로 보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면 공포심을 느끼기도 한다. 분명 이것은 생사의 문제로 다가온다.

“태국에서 약 한달 동안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수용소를 한국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브로커가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나중에는 혹시 이러다 북한 사람들이 들이 닥쳐 북한 대사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절망인 것이지요. 한국에 도착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생존의 위협을 수시로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례 F)

생존의 문제는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말로만 들었지 미지의 세계에서 실제 겪어보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 있기 마련이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남한 국정원의 잔인함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반 탈북민은 한국에 도착한 후 국정원 보호소에 입소하고 일정한 시일이 지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나서야 신변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해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사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생존의 문제는 별개로 다가온다. 대한민국 땅에서 온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지의 고민과 걱정과 직면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기본적 생계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홀로 낯선 땅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도착해 국정원 보호센터에 입소하였는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고문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남조선에 들어가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고문해서 죽이거나 수용소 같은데 보내서 평생을 비참하게 보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목숨 걸고 한국에 왔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런 걱정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세뇌교육이 무서운 거 같습니다.“ (사례 H)

“국정원에서의 의심이 사라지고 난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과연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과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 정착금이나 주택지원, 생활비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건지 언제까지 보장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공산주의 북한에서만 살다온 내가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사례 K)

연구자는 탈북민의 탈북과 이동과정에서 느끼는 생사에 대한 걱정 그리고 국내 입국 후 느끼는 정상적 생계의 고민을 종합적으로 개인적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일반 탈북민 대부분은 홀홀단신으로 탈북해서 국내에 입국하기 때문에 의지할 데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당연히 장래의 생계와 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다.

즉, 국내입국 이후 탈북민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 문제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장기간의 관찰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이러한 탈북민 개인의 생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 입각한 기본 주거와 생활 지원이 보장되는 지원제도는 북한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계유지와 취업과 교육지원 등 여러 복지혜택으로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통상 하나원 퇴소후 1년 안에 개인적 생존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정착지원제도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사회적 성장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면 개인적 생존에 대한 걱정을 벗어나 자본주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동기욕구가 생기기 시작한다.

2) 사회적 적응 단계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어느 조직에 속하는 것이다. 직장, 학교, 교회 등 어떤 단체나 조직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이 때부터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적응이 시작된다.

사회 활동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언어의 문제이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같은 한글을 사용하지만 70년 이상 분단의 시간이 지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민들이 자주 느끼는 애로사항은 너무 많은 외래어의 사용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도 한글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데 남한에서는 외국어를 우리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외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러한 외래어 이해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에 언어 소통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처음 한국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간판마다 죄 한글로 써 있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았더니 전부 영어 인데 그냥 남한에서는 일반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미 제국주의 식민지 잔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아닌 것이라고 이해했지요. 지금도 생소한 외래어가 많아서 애로가 있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례 P)

탈북민들의 사회적 적응문제는 언어나 의사소통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문제인데 자유훈 보다는 타율이 습관화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어느 직장에 배치되었을 때 개인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든 하지안튼 배급이나 월급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알아서 하기 보다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습성화 되어 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사회주의 시스템의 맹점이고 공산주의 경제시스템이 종말을 맞이한 주요 원인이다. 탈북민이 북한에서 체득한 타율적 사고와 행동양

식은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과는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탈북민이 한국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주변 동료들과의 마찰 요소가 되고 고용주가 불만을 가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탈북민의 초기 취업률이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과 성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탈북민은 시스템 적응을 위해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게 된다.

“한국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 직장에 들어 와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간단히 설명만 해주고 익숙해질 여유도 없이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었는데 막무가내로 따라만 하다 보니 실수가 많이 나오고 불량으로 처리 되니까 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고 또 사장님 볼 면목도 없었구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뭘 잘 못했는지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었거든요. 열심히 하지도 않구요. 근데 한국은 전혀 판 판이었지요.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따라 갈려면 한참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밤낮으로 연습했어요. 단순작업이니까 머지않아 수준에 올랐구요. 그래서 그 때 느꼈어요.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성과주의와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는 것어요. 북한도 열심히 일한 것에 상응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제 시스템이었으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했구요.” (사례 M)

“고용주 입장에서는 탈북민을 채용하였을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로운 점이 많을 거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자는 우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업무교육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구요. 일을 알아서 해야 하는데 시키는 거만 하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년 이상된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몇십년 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힘든거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탈북민은 같은 한국사람이라는 인식도 있고 자존심이 쎈 편이라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남아나 인도, 파키스탄 이주민을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한국인 고용주 사례)

문화적 적응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폐쇄국가인 북한은 전통적인 관습과 옛

방식의 사회통념이 남아있는 반면 한국은 자본주의와 개방사회로 인하여 서구화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크게 가족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누어진다.

북한에서는 주로 가족중심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고 생계와 생활도 가족 단위로 영위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결혼으로 출가를 하거나 원거리 이주를 제외하고는 가족 단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도 추가적인 탈북을 하여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도 가족 중심의 공동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민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취업을 하여 독립 가구와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이 밖에도 남성중심 문화, 집단주의 의식, 국가의존적 사고방식 등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드는 생각은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의 습관과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북한을 떨쳐버리는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도 다 자기 고향이 있듯이 북한 함경도는 내 고향이고 언젠가는 다시 찾아봐야 할 곳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탈북민들은 통일에 대한 소망이 매우 큼니다. 한국 사람들보다도 훨씬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크죠. 통일 대한민국이 우리 탈북민이 꿈꾸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탈북민들이 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통일 후에 북한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려는 소망이죠.”

(사례 F)

3) 대한민국 동화노력 단계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민족으로 자신들을 받아주고 기본적인 생계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착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도착하자마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해 주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까지 발급이 될 때는 벽찬 감격을 느낀다고 한다. 통상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만은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한국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지향하고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경제적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한 후에는 저축이나 재테크, 사업 성공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노력한다. 중산층 이상의 부를 축적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착에 성공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탈북민이라는 열등감도 거의 해소되는 것 같다. 이제야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동화 정도나 정체성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력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탈북민 신분으로 권력이나 명예와 관련된 지위를 획득하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탈북민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부의 축적을 목표로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착 성공의 척도이고 대한민국에 동화되어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 친구들도 하루 빨리 통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일단 한국 사회는 제가 노력한 만치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는 내가 이 땅에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일단 취직해서 목돈을 만들어 장사를 시작했어요. 중국 조선족이나 동남아 이주민 등을 상대로 인력 소개와 환전사업을 하면서 현금을 모았고 틈틈이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월세도 받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느낌도 들고 어떤 한국 사람도 부럽지 않고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라는 착각도 들고 이젠 완전히 한국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나를 받아주고 나를

성공하게 만든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죠.” (사례 E)

탈북민에게 있어 경제적 자립은 대한민국 동화의 절대적 기준이자 정착 성공의 중요한 척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측면이 대한민국 동화의 추가적인 보완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4) 과정분석 단계별 정착지원제도의 효과

개인생존 단계에서는 정착지원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에서는 기본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 탈북을 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개인 생존과 기본 생계의 유지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래 지 않아 해결되는데 그것은 정착지원제도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하나원과 지역적응 센터의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하고 하나원을 퇴소하게 되면 바로 거주 지역 선정과 함께 기본급과 지방거주 장려금,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등의 정착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거주지역의 주택알선과 주거지원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생계급여와 연금특례 등의 사회보장이 지원된다. 이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국가의 지원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응 단계에서 주로 필요한 지원제도는 직업훈련비와 수당,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등의 취업 지원과 탈북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제도이다. 또한 특례 편·입학과 학비 지원 등의 교육 지원 제도이다. 물론 생계급여와 의료보호 등의 사회보장도 탈북민의 사회적응 단계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대책이다.

대한민국 동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탈북민은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 경우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이나 연금특례 등의 기본적 사회보장 지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취업이나 주거 지원제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오히려 창업을 통해서 다른 탈북민들을 고용하거나 정부에서 제공한 주거지에서 벗어나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다.

“탈북민 정착지원제도가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되어 있어 우리 같은 홀홀단신 탈북민들은 한국 정착 초기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끼니 걱정으로만 세월을 보내는데 한국에서의 지원제도 덕택에 주거와 생계유지가 한번에 해결되니까 그저 신기하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보다 훨씬 잘 사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고자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때도 지원제도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직업교육, 취업 소개, 장려금 지급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학교 교육이 부족하다 싶으면 대학은 골라서 갈 수 있고 학비 지원까지 되니까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한국정착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자신만의 일을 만들어 가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되어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지원제도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같은 민족인 조선족이나 고려인들도 받지 못하는 탈북민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M)

제 5 장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과 축 코딩 수행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과정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고 근거이론 방법론에 입각하여 선택코딩에 의한 핵심범주 분석과 이야기 윤곽 전개, 그리고 유형분석과 상황모형 분석 결과를 최종적인 연구결과로 서술하였다.

제 1 절 선택코딩 결과

선택코딩은 근거이론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론을 형성하는 차원의 단계에 따라 범주를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통합하여 관계에 대한 진술의 근거를 확실하게 정교화 하는 단계이다. 개인과 제도, 사회적 수준에서 상황 모형을 통해 중심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과 작용/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통합의 과정은 크게 핵심범주 선정, 이야기 윤곽 기술하기, 가설적 정형화에 의한 유형 분석 등이 있다. 선택코딩 과정에서 개방코딩 과정과 축 코딩 과정에서의 개념과 범주가 수정되기도 하는 등 전체 분석의 과정은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고삼곤, 2020).

1) 핵심범주

핵심범주의 선택 기준은 5가지이다. 첫째, 충분히 추상적이고 둘째, 자료에 자주 나타나며 셋째, 논리적이고 자료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넷째, 일반 이론으로 발전하여 향후 연구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다섯째, 관계의 진술을 통해 각각의 범주 들이 핵심범주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깊이와 설명력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대한민국에서의 생존과 적응, 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북민 각자의 차이점과 제한점을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취업과 경제력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한국민이자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이다.

2) 이야기 윤곽 전개

이야기 윤곽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서로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다듬고 범주를 정교화 해서 다른 이야기로 기술하는 과정으로 서술적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대한민국에서의 생존과 적응, 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북민 각자의 차이점과 제한점을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취업과 경제력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한국민이자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로 정리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윤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탈북민의 한국 정착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 동아시아 한반도 지역에서의 현대사와 국제정치 학적인 특별한 정세 속에서 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하나의 국가가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국제적 난민이나 이민과는 다른 독특한 이주 형태인 것이다.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망명이나 난민이라는 형태로 타국 즉, 남의 나라로 떠돌아 다니거나 이방 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지만 탈북민의 대부분은 또 다른 자신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국민 자격으로 정착을 한다. 중국에 숨어사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것은 같은 역사와 말과 글을 공유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폭압적인 원래의 나라 북한에서 살다가 그런 북한과는 정반대로 국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언제부터 인가 동경의 대상이 된다. 그 대한민국은 자신들을 당연한 국민으로 받아

주는 또 다른 조국인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마지막 행선지와 종착지로 대한민국을 향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와 혹시나 하는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상천국임을 알게 된다. 우선은 배고플 일은 전혀 없으며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산해진미가 넘쳐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볼 수 있고,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나라님 욕을 해도 잡아가지 않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하고 꿈을 꾸는 것 같이 느껴진다. 북한에서의 극심한 빈곤과 기아, 정치적 탄압과 박해,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탈북을 감행하여 중국에서의 단속 위험과 인신매매, 심각한 인권침해 등의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 유일한 희망인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 기쁨과 보람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데 눈으로 직접 보는 대한민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꿈 같은 나라인 것이다. 이런 나라에 정착한 것 만 해도 그 이상의 소원이 없을 일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통해 정착금, 주거, 취업, 교육, 의료, 거주지 보호 등의 각종 혜택으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과 함께 기본적인 생계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과 감사함에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에 대한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디어 지지만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의 배려에 기본적인 감사함을 가지게 된다. 국내 입국 당시의 경이로움과 기쁨은 잠시이고 본격적인 정착이 시작되면 부딪치는 문제가 한 두가지 아니다. 북한과는 모든 면에서 판이하게 다른 오히려 정반대인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스템에 적응하기란 쉽지가 않다. 공산주의 독재체제에서의 타율적이고 기계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문화 제도와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을 위해 사소한 방식까지 익혀야 한다.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느끼는 것도 심리적인 부담이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는 장기적인 시간과 개인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탈북민들은 적응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TV 시청과 학습, 여행, 친목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지 생활 유지나 사회 적응에만 머물 수 없다. 진학을 통해 학업을 마치

고는 취업을 하고 직업을 가져야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탈북민들의 진학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경력과 이력이 부족한 탈북민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불리한 조건이지만 탈북 선택에 대한 믿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추가 탈북한 가족의 합류 등의 사유가 국내정착 성공의 강한 동기와 의지로 작용하게 된다. 탈북민 정착 성공의 기준은 경제력 확보와 자립 여부이다. 따라서 국내에 정착한 모든 탈북민들의 소망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직업을 구하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갖추어 떳떳한 한국민으로 사는 것이다.

제 2 절 유형 분석 결과

연구자가 만난 참여자 15명을 비롯한 많은 탈북민들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정착과정에 있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개인적 제한사항을 본인의 의지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운명개척형’ 그리고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본적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안주형’, 마지막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주변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대한민국을 이탈하려고 하는 ‘회피형’ 이다.

1) 운명개척형

3만 3,000명이라는 많은 수의 탈북민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탈북민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탈북민과 똑같은 조건에서 국내정착을 시작하였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과 개인사

업에서 성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의 특성을 빨리 간파하고 주변 인맥을 쌓고 여러 자문과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국내의 경제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편입한다.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창업을 하여 성공하거나 취업을 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탈북민의 특징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과 수단을 전부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모든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남북하나재단 등 지원단체의 도움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한다. 같은 탈북민이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지원 받는 수준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성이 자신의 일을 찾게 만들고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게 된다.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탈북민의 많은 경우가 자신만의 특화된 장점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하던 음식기술로 식당업으로 성공하거나 북한군에 복무하다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해서는 정부부서나 연구기관에 채용되거나 북한 예술단 경력을 활용하여 국내 공연을 활발히 하는 등의 경우이다. 이 밖에도 자신의 특출한 취미와 취향과 관련하여 의류나 화장품 사업 등에서 성공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을 마치고 서울에 정착하여 다른 탈북민들을 보면서 마음을 먹은 것은 저들처럼 살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 임대 아파트에 많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 임대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근히 기초생활 수급자로 사는 탈북민들이 많았던 말입니다. 이왕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남 부럽지 않게 살아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거죠. 그래서 닥치는대로 일단 배우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직장생활하면서도 한국사람 같이 눈치있게 알아서 하니까 다른 탈북자와는 다르다고 인정도 받았구요. 다음에는 악착같이 저

축을 해서 목돈을 모아 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고 한국에 없는 것이 뭔가 생각하니까 음식이었습니다. 일반 식당인데 북한 메뉴도 같이 하니까 차별성이 있어서 장사가 잘되어 돈을 꽤 많이 벌었지요. 그래서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해서 월세도 나오고 웬만한 한국사람 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국 사람 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J)

2) 현실안주형

대다수의 탈북민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의 혜택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이다. 젊은층 보다는 주로 50대 이상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이 체질화되어 한국 자본주의 습관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 세대로 배고픔과 아사의 위기에서 탈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중년의 나이로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의 부족이다. 이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자식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에 인생의 큰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민국에서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식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선물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 유형의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혜택에 크게 감사하고 기본적인 거주와 생활, 생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소위 ‘장마당 세대’ 라고 할 수 있는 일부 30~40대 젊

은총 중에서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번번히 실패를 반복한 경우 더 이상의 노력을 중단하고 기본적인 생활과 생계 유지에 만족하는 현실안주형으로 머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겠습니까나이 60이 넘어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와 보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먹거리가 넘치고 또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일거리 삼아 틈틈이 용돈이나 별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구요. 그저 북한에서 데리고 온 자식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해서 떳떳한 국민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지요. 전 자식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선물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자식들 결혼해서 손자들 낳고 대대손손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여한이 없어요. 전 반쪽짜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자식세대 부터는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 이미 제 할 일을 다한 것이구요. 이제는 자식들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H)

“전 20대에 한국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탈북민 신분으로는 직장에서 출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 저것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해서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망한 상태라 정부와 단체에서 지원하는 기본 생계만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기회가 생기면 다시 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나이가 30 줄이라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한국 사회는 노력한 만치의 대가가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례 P)

3) 회피형

탈북민 중에는 국내정착에 완전히 실패하거나 포기한 사례들도 가끔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경우보다는 홀로 탈북하여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어 혼자 살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기에 혼자 한국에 정착하여 살다가 학교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거나 적응에 실패하여 비정상적 생활에 빠지는 경우이다. 술이나 도박, 마약으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 지기도 하고 범죄에 연루되어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으로 살기에도 제한사항들이 많은데 전과자까지 되면 한국 생활에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여기서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생기고 중국을 왕래하면서 다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중국이나 북한을 왕래하다가 상대국 공안기관에 피포섭 되어 간첩으로 활동하면서 탈북 동료들이나 대한민국을 배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의 정착이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

다른 경우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착에 실패하는 것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현지 공안기관의 협박으로 다시 북한으로 오라고 설득하는 경우도 있고 공안기관에서 직접 탈북민에게 연락하여 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설득과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

이와같이 소수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정착을 회피하고 제3국으로 이주하거나 북한으로 돌아간다.

“제 친구는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한국에서 사는 것 보다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고가 없는 미국에서도 한인 사회와 연관되어 살아야 하니까 탈북민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서의 차별도 존재하니까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이왕 간거니까 끝까지

노력하다가 안되면 다시 한국으로 올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탈북민으로서의 적응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례 O)

“탈북민중에서 남자들의 경우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빙두’라는 마약을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일종의 필로폰인데 중독이 돼서 한국에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하다가 단속이 되어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출소해서도 중국을 다니며 마약을 계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한국에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중국에 가서 실종되어 생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구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웬만한 결심이 없으면 한국에서 폐인 되기가 딱 십상이지요.” (사례 A)

“탈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북한에서 행불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탈북민이 한국에 와 있다고 북한 보위부에서 알게 되면 북한의 가족을 통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그 때는 가족을 다시 안보겠다고 다짐하고 그 연락을 단절해야 되는 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가족의 연락을 받다 보면 회유와 협박, 설득에 시달리게 되고 가족을 만나는 명목으로 중국에 갔다가 납치되어 귀북 되거나 아니면 북한 공안기관에 피포섭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간첩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사이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례 M)

4) 유형분석별 정착지원제도의 활용과 역할

우선 ‘운명개척형’ 탈북민의 경우 국내정착 과정에서 정착금과 주거지원 등의 공통적인 혜택을 받은 후 취업과 사회보장, 교육지원 그리고 상담지원 까지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지원항목을 철저히 활용한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적 지원대책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혜택과 보장을 받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본 정착금과 주거 지원은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취업이나 복지, 교육 등의 지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사전에 안내교

육을 하거나 거주지역의 담당공무원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무관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주로 ‘현실안주형’이나 ‘회피형’ 탈북민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현실안주형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지원제도에만 한정하여 관심을 갖는다. 개인 발전이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취업지원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피형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서 정착지원제도를 불신하기도 하고 현실도피 경향을 보이고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운명개척형은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나 민간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으로 만들어 순조로운 사회적응을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착지원제도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회피형과 현실안주형 탈북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영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내 정착과정에 있는 탈북민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국내에 정착하는 탈북민을 위한 훌륭한 정착지원제도가 있지만 개인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는 만치, 노력하는 만치 자기의 역량과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로 인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 정착 초기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개인의 의지와 열정, 목표의식인 것 같습니다. 발전이 없거나 정착에 실패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 모색과 함께 정서적·정신적인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멘토 그룹이나 단체의 운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례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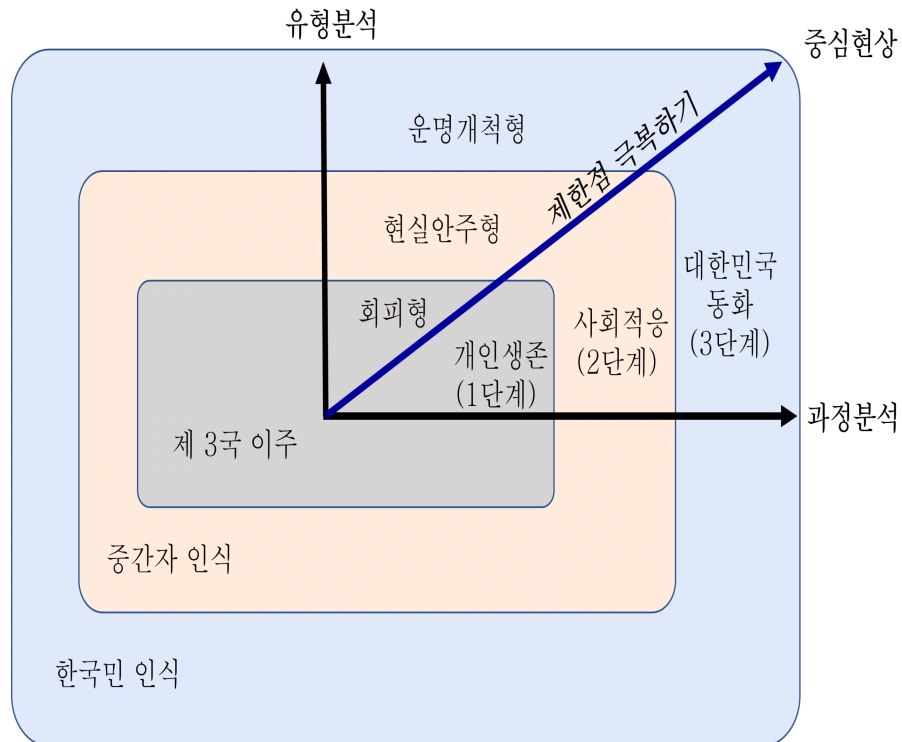
제 3 절 상 황 모 형 분 석 결 과

1) 상황모형도 도출과 분석

상황모형은 중심현상과 다양한 상황적 조건인 인과적 · 맥락적 · 중재적 조건들이 미시적, 거시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작용/상호작용과 얹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분석 도구이다(Strauss & Corbin, 2001).

모든 다양한 상황을 통합하는 분석적 틀을 만드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는 중심현상에 대하여 보다 완벽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해 준다

〈그림 5-1〉 상 황 모 형 도



출처: 연구자 도출 및 도식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 국내정착 과정의 중심현상을 ‘제한점 극복하기’로 도출하였고 중심현상의 진행 정도에 따라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그리고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를 통합하여 상황모형도로 도식하였다.

과정분석 측면에서는 제한점 극복 정도에 따라 1단계 개인 생존에서 2단계 사회적응을 넘어 3단계 대한민국 동화 까지 발전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형분석 측면에서도 중심현상인 ‘제한점 극복하기’ 수준에 따른 회피형, 현실안주형, 운명개척형 으로의 분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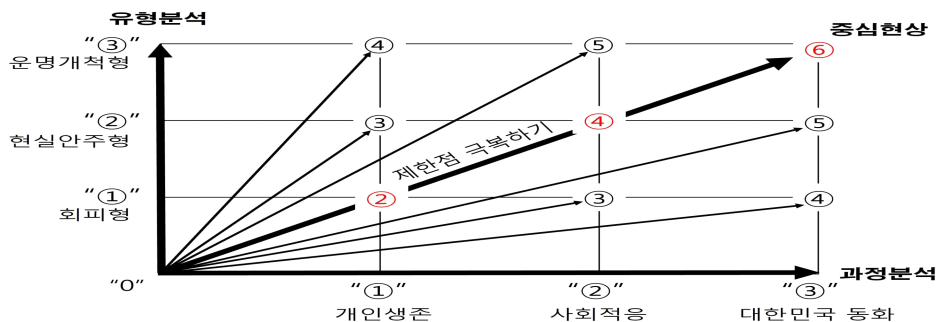
또한 과정분석과 유형분석은 중심현상을 매개로 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는데 개인 생존 - 회피형, 사회적응 - 현실안주형, 대한민국 동화 - 운명개척형 으로 연결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유형의 상관성은 작용/상호작용과 얽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3국 이주’는 개인 생존 - 회피형과 ‘중간자 인식’은 사회적응 - 현실안주형, ‘한국민 인식’은 대한민국 동화 - 운명개척형과 동일한 범주로서의 상황모형 도출과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중심현상인 ‘제한점 극복하기’의 수준과 진행 정도가 탈북민의 정착 과정상의 진전 단계와 개인별 유형 그리고 정착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상황모형 그래프 분석

〈그림 5-2〉 상황모형 그래프



출처: 연구자 도출 및 도식

앞의 그래프는 상황모형 도출의 결과물을 통하여 중심현상을 기준으로 한 유형분석과 과정분석을 연계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중심현상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상황모형 평가를 위하여 유형과 과정의 단계별 수량적 가중치(“①”, “②”, “③”)를 부여하였다. ②~⑥ 까지의 가중치를 평가하였을 때 평가의 기준인 중심현상 선상의 가중치는 ‘회피형-개인생존’은 ②, ‘현실안주형-사회적응’은 ④, ‘운명개척형-대한민국 동화’은 ⑥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중심현상 밖의 상황모형에 대한 평가는 가중치를 근거로 ② 이하는 ‘한국정착 포기’, ③과 ④는 ‘한국정착 진행’, ⑤와 ⑥은 ‘한국정착 성공’으로 분류하였다.

〈표 5-1〉 가중치 분류표

구 분	분 류
② 이하	대한민국 정착 포기
③ ④	대한민국 정착 진행
⑤ ⑥	성공적 대한민국 정착

출처: 연구자 작성

가) 대한민국 정착 포기

소수이지만 대한민국 정착의 포기로 이어진 상황모형은 한국정착의 가장 낮은 단계인 ‘회피형’의 유형과 ‘개인생존’의 과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탈북민의 정착과정의 중심현상인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를 위한 상황모형 평가의 결과는 탈북민 개인의 극복의지와 가정 및 주변환경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정착지원제도가 개인생존의 동기욕구를 충족시켜야 탈북민들의 한국정착 포기를 방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착 포기의 상황모형 그래프의 결과는 ‘회피형-개인 생존’ 중심현상이 유일하다.

나) 대한민국 정착 진행

상황모형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착 진행에 대한 상황은 중심현상과 함께 중심현상 밖에서의 다양한 상황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상황모형과 가중치 그리고 중심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 5-2〉 대한민국 정착진행 가중치 분석 표

구 분	상 황 모 형	가 중 치	기 타
1	현실안주형 - 사회적응	④	중심현상
2	운명개척형 - 개인생존		중심현상 외
3	회피형 - 대한민국 동화		
4	현실안주형 - 개인생존	③	
5	회피형 - 사회적응		

출처: 연구자 작성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현실안주형-사회적응’은 탈북민들의 제한점 극복하기의 대한민국 정착 진행 단계에서 가장 기준적인 모형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통해서와 남북한 사이에서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는 단계이다.

앞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정착 진행에 대한 상황모형은 중심현상 밖에서 보다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우선 과정분석 면에서 가장 낮은 ‘개인 생존’ 단계에서도 기본적인 생활과 생계유지가 가능한 ‘현실안주형’과 탈북민 스스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운명개척형’의 유형을 포괄하는 상황모형 결과는 대한민국 정착 진행 단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탈북민 개인 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유형분석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 적응이 부적합한 ‘회피형’이 중심현상인 제한점 극복과정에서 ‘사회 적응’과 ‘대한민국 동화’ 과정과 연계된 상황모형도 대한민국 정착 진행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의지 부족과 정착과정에서 부딪치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데 외부적 요

소인 사회적 지원이 중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은 각종 민간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시행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제도의 발전과 개선도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 성공적 대한민국 정착

상황모형 그래프 분석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 모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3〉 성공적 대한민국 정착 가중치 분석표

구분	상황모형	가중치	기타
1	운명개척형 - 대한민국 동화	⑥	중심현상
2	운명개척형 - 사회 적응	⑤	중심현상 외
3	현실안주형 - 대한민국 동화		

출처: 연구자 작성

중심현상 선상에 나타나는 ‘운명개척형 - 대한민국 동화’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모형이다. 정착지원제도를 기반으로 한 탈북민 자신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심현상 밖에서 나타나는 상황모형인 사회적응 단계에 있는 운명개척형 그리고 현실안주형이지만 대한민국 동화 단계에 있는 모형도 성공적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 6 장 결 론 및 논 의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탈북민 국내 정착 과정의 중심현상은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이다. 대한민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인 북한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거주한 탈북민에게 있어서는 국내입국 이후 단순히 물리적 정착이 아닌 대한민국 체제에 화학적 동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대한민국 동경’과 ‘민족 동질감’ 등의 배경과 제3국이 아닌 ‘한국 이주 선택’은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의 인과적 상황으로 분석되었고 ‘가족동반 여부’ ‘탈북 동기와 과정’ ‘재북 시절 지위’는 개인별로 상이한 특수한 상황으로 중심현상인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이해되었다.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는 ‘취업 의지’ ‘한국인과의 교류’ ‘경제력 확보’ ‘문화 적응’과 같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나타나며 이를 촉진하거나 억제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 ‘정착지원 제도의 활용’ ‘친목 단체 가입’ ‘차별 의식’이 도출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탈북민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남한도 북한도 아닌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거나 심한 경우 대한민국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국외 이주’를 결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논의

1) 학술적 함의

첫 번째, 질적연구의 하나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특정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제한되는 연구방법이라는 것과 탈북민 국내 정착 과정 전반을 근거이론으로 연구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거이론 방법론의 목적은 특정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탈북민 국내 정착 과정을 특정 사례로 볼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민이나 난민의 정착과정은 문화적응 이론이나 이주론, 적응론 등 일반화된 기존 이론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탈북민 국내 정착 과정사례는 이주현상의 하나이지만 다른 이주현상과는 달리 그 특성과 양상이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같은 민족, 같은 지역(국가)이지만 정치체제가 다른 장소로 이주하는 전 세계 유일의 특별한 상황이자 전 세계 이주민 가운데는 소수의 특정사례로 분류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의 특정사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되기 바란다.

두 번째, 문화적응 이론이나, 욕구이론, 이주론, 적응론 등 기존의 학술이론으로 탈북민 정착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이론적 배경 검토에서 서술하였다시피 동일한 역사와 언어, 문자를 공유한 같은 민족 간의 정착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탈북민 국내 정착 과정 전반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사례도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탈북민 국내 정착 과정 전반을 설명하기 위한 통합이론 도출을 시도하였다는 것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세 번째,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중심현상인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제한점 극복 노력은 탈북민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의 제한점 극복하기는 그 속성과 깊이 면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이주민은 주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점 극복 노력을 하지만 탈북민들은 같은 한 국민으로 살고자 제한점 극복 노력을 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차원 높은 단계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민

족적정체성 형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 이주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이론에서의 차이점 극복과 본 연구에서 말하는 차이점 극복은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정책적 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본 연구 패러다임 모형에서 중재적 조건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 탈북민 국내정착 과정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정착지원제도가 탈북민 국내정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국내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탈북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다. 지원 내용도 주거에서부터 교육, 의료, 취업, 거주지 보호 등에 이르기 까지 방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결과물인 것이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정착 초기는 물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 까지 상당 기간 탈북민들은 이 정착지원제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은 정착에 필요한 거주와 생활 전반사항 지원에 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매우 만족해 함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 있을 때나 태국 수용소에서 대기할 때는 한국이 잘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게 되면 밥 굶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를 해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 교육을 받을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세부 내용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하나원 퇴소 후 받은 혜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정착금, 집, 주민증, 여권, 생활비, 취업지원 학원비 등 등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했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 탈북자들을 들어오자마자 국민으로 받아주고 교육시켜 주고 여기서와 같은 생활기반들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의 나라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것이겠죠.” (사례 F)

“저는 사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탈북민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설마 했습니다. 단지 브로커가 한국에서 받게 될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탈북과 제 3국 이동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정착금 정도만 확실히 믿었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았지요. 그저 한국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면 북한 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중국에서 들었던 것 이상의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일단 생활에 필요한 것 모두가 지원이 되었지요. 상상 이상으로요. 우리 같은 탈북민에게 이 정도 혜택을 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혜택을 주겠구나 하고 생각 했지요. 그 때까지도 저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준다는 사회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같은 탈북민들 에게만 해당되는 지원제도라는 것ですよ.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정말 대한민국 오기를 잘했다고. 여기에서 성공해서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도 했구요.” (사례 J)

나) 정착지원제도의 한계와 보완방향

정착지원제도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에게 생활기반과 최저생계를 제공하고 교육과 취업 지원, 각종 의료 및 복지 혜택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순기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허점과 역기능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상황의 변화로 순기능이 역기능이 되기도 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의 운영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주기적인 점검, 그리고 허점과 역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의 허점과 역기능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착금이 주로 탈북 브로커에게 비용으로 소모되어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둘째, 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이 미흡하다. 탈북민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탈북민 취업 시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임금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장기 고용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세 번째로 정착지원제도로 인한 최저생계 유지 보장이 오히려 중장년층 탈북민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현실안주를 하게 만드는 역기능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 및 입국 비용을 고려한 정착금 등 현금 지원의 차등화, 북한에서의 경력과 연계된 직업 교육과 취업 알선 그리고 자립과 근로의욕을 유발시키는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에게 있어 정착지원제도 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활기반 마련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만큼 탈북민들에게는 정착지원제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착지원제도를 통하여 마련한 생활기반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정착지원제도가 보장해주는 수준에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정부에서 지급한 임대아파트를 편법으로 활용하다가 입주권리까지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극소수에 해당되지만요. 많은 탈북민들이 자신이 북한에서 했던 것을 한국에 와서도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북한과 여기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부족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보완하고 해서 과거 했던 일과 연계성이 있는 취업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례 K)

제 3 절 탈북민 관련 정책대안 제시

첫 번째로, 탈북민 주거지원의 다양화 필요성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임대아파트이다. 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의 임대아파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또한 도시 위주의 생활기반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 조건에 대한 탈북민의 불만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탈북민 중에는 도시 아파트 지역을 떠나 시골 지역에서 농수산업이나 임업 등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젊은 사람보다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이나 노년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문제와 공동화 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평양이나 청진 같은 대도시 지역 보다는 시골이나 촌락 지역에 거주하다 탈북한 인원들이 대다수이다. 또한 그들은 탈북 이전 농수산업이나 임업 등의 산업에 종사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 중 시골지역에서 농수산업이나 임업, 축산업을 하고자 희망하는 인원에게 대해서는 농가주택을 지원하고 지방의 유희지를 임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농어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고 탈북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자연환경과 넉넉한 주거공간에서 자신들이 북한에서 해왔던 경험과 기술을 발휘하여 경제적 자립 가능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 밖에도 탈북민들끼리 마을을 구성한다든가 북한과 관련한 산업 단지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정책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본 연구에 의하면 탈북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취업문제이다. 따라서 정착지원제도의 취업지원과 병행하여 전문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전담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 번째, 향후 통일시기에 대비하여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양강사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탈북민에게 능력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대규모의 교육 수요가 예상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효과성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 사람들 보다는 탈북민들이 훨씬 유리할 것이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에서도 탈북민들의 공통적인 여망은 통일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예상된다.

제 4 절 결 언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정착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고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의한 절차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정착과정에서 ‘차이점과 제한점 극복하기’를 중심현상으로 보았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념과 범주로는 ‘한국 귀순 선택’, ‘대한민국 동경’, ‘민족 동질감’이 도출되었다. 이중 결정적인 상황은 ‘민족 동질감’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한국을 동경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을 배우거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수준에서 만족을 하지, 대한민국 동화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나라 국민과의 화학적 동화는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한 같은 민족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탈북민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이다.

문제는 한국민의 인식과 마음자세이다. 분단의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같은 민족이라는 동족인식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 일수록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고 민족 동질감도 변형되거나 왜곡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탈북민의 국내정착 과정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특정 세대나 특별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질적 연구의 한계가 일반화가 제한된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특정 사례 중심의 연구는 현상의 일부나 부분만을 설명하는데 유용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탈북민의 국내 정착 사례의 전형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탈북민 국내 정착과 관련한 일반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기반을 도출하였고 이는 질적 연구의 취약점인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다. 또한 그것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연구자의 전문성과 연구 숙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연구자에 의하여 질적 연구가 수행될 때 보다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양질의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째, 탈북민의 국내 정착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적 기반을 배경으로 한 추가적인 양적 연구나 다른 기법의 질적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수정되고 발전된 연구성과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정착과정 전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착상황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보완점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탈북이 지속될 것이고 그 중에서 상당수의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의 지속과 이론들이 보완되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더 나은 정책이 수립되고 통일에 대한 명분 강화와 공감대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대한민국 통일부 (2021).
- 기영화·김승현·김남숙. (2013).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회 47권 1호.
- 김영천 (2017),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제 20권 제2호.
- 고삼곤. (2020).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학년 부장 교사 리더십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 치료 제16권 제2호.
- 노길수. (2020).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사례와 시사점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류재화.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 문지은. (2015). 『도보여행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문희정. (2018). 『탈북 후기청소년의 대학 적응』.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송경옥. (2021). 『중년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질적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신경식·서아영·송민채. (2016). 『사례연구방법』. 제5판.
- 신율. (2015). 『탈동독 주민과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사례 연구』. 평화학연구 제16권 3호.
- 안상윤. (201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정책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오은경. (2018).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적응 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유정석. (2005). 『현대의 난민문제와 한국; 선진국의 난민정책: 캐나다의 이민-난민정책』. 민족연구 23권 0호.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명신. (2020). 『북한이탈 여성의 한국정착 만족도 고찰』. 숭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이성순. (2019). 『근거이론을 적용한 대전지역 결혼이민자의 취업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 연구 30.
- 이은혜. (2016). 『대안학교 출신 탈북 대학생의 커뮤니티 경험과 문화적응』. 질적탐구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2016. 제2권 제2호. .
- 이은혜. (2017). 『두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경험과 정체성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이종아. (2020). 『남한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자원 전환 및 창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이지영. (2019).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적응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임향아. (2020). 『진지한 여가활동으로서 댄스축제 참여경험 의미와 과정의 이해 : 근거이론을 기초하여』.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장정은. (2020). 『무연고 탈북 여자청소년의 정착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전명희. (2012).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64, No. 4.
- 전우택·유시은. (2011). 『북한 이탈주민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유형』. 통 일정책 연구.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23권 제1호
- 조민희. (2019).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조인수. (2017).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문화충돌과 직업적응과의 관계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조현진·서보순·박재국·박량은. (2016).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7권 1호.
- 채정민·김종남. (2004). 『북한 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논문.
- 채서일·김주영. (2016).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제4판.
- 최승호. (2010).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통일』. 정치정보연구 학술논문.
- 최대석. (2010). 『탈북자 정착연구 실태분석과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 국외문헌

- Berry, J.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 Cresswell, J. W. (2016). *30 Essential skill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er*. CA: Sage Publication. 한유리 역(2017).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 서울: 박영스토리.
- Corbin, J., and Strauss, A.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Denzin, Norman K. (1978). *Studies in symbolic interaction : an annual compilation of research* . v.1: Greenwich, Conn. : JAI Press.
- Galtung, Johan. (1990). "International Developement in Human Perspektiv", John Burton(eds.), *Conflict: Human needs theory*. New York: Saint Martin's Press incn.
- Gillwald, Kartin. (1990) "Conflict and Needs Research", John Burton(eds.), *Conflict: Human needs theory*, New York: Saint Martin's Press Incn.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Glaser, B.(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Howell, Thomas A. (1972). *Latin America*, New York : Facts on file, inc.
- John W. Creswell/Jo, H. S., Chung, S. W., Kim, J. S., & Kwon, J. S.(2010). *Qualitar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Seoul: Hak Ji Sa.
- Lankov A.(2004) *North Korean Refugees in Northeast China*, Asian Survvey.
- Mason, J.(1996). *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옮김(1999).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
- Roy, Ramashray. (1990). *Social Conflict and Needs Theories: Some Observation*, John Burton(eds.), *Conflict: Human Needs Theory*, New York: Saint Martin's Press Inc.
- Sam, D.L. and Berry, J.W. (2006).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 Shin, K. R., Cho, M. O., & J. H. (2008).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2001, 서울: 현문사.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 M (2001). *Grounded theory in practice*. Sage.
- Wiliams, C.L., and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 63-64.

부 록 - 면 접 설 문 지

〈이 름: 〉

■ 기본 인적사항

성 별	나이(출생연도)	학 력	가족관계	출신지역(북한)

■ 면담 1단계 : 현재 정착상태 확인

구 분	내 용
1.거주	①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이며 거주지역 선정은 어떻게 결정되었고 국내 거주기간은 얼마입니까?
	②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최초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몇 번 하였으며 현재 이동을 희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2.취업 / 보수	④ 현재 취업단계(취업완료, 취업준비, 실업, 구직중)는 어떠한 상태이며 어떻게 준비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까?
	⑤ 어느 직종에 어떠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로 취업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고 있습니까?
	⑥ 현재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거나 받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3.경제 수준	⑦ 현재 어느 정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⑧ 본인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4.가족 동반	⑨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⑩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 면담 2단계 : 남한사회 적응수준 확인

구 분	내 용
5.교류 정도	① 남한사람들(친구, 동료, 친인척 등)과의 교류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남한사람들과의 친밀도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직장이나 학교, 거주지역 등 연고지에서의 남한 사람들과의 친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동화 수준	④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및 동화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⑤ 남한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⑥ 본인 자신을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 면담 3단계 : 탈북과정 및 동기 확인

구 분	내 용
7.재북 요인	① 재북시절(탈북이전) 거주지역, 경제수준, 가족관계, 출신성분, 직업 등은?
8.탈북 동기	② 탈북동기는 무엇인가요?
9.탈북 과정	③ 탈북경유지와 경로는 어디인가요?
	④ 탈북후 제3국 체류지역은 어디이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면담 4단계 : 통일에 대한 인식 확인

구 분	내 용
10. 가능성/시기	① 귀하는 남북통일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탈북민 역할	② 귀하는 남북통일 후 탈북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면담 5단계 : 국내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확인

구 분	내 용
12. 정착금 지원	① 정착금 지원수준과 절차, 지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② 정착금은 어떻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13. 주거지원	③ 주거지원 수준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4. 취업지원	④ 취업지원 수준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5. 교육지원	⑤ 교육지원 수준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6. 복지지원	⑥ 의료 및 사회복지지원 수준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7. 거주지 보호제도	⑦ 거주지 보호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8. 하나원 교육	⑧ 하나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9. 기타	⑨ 정착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⑩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참고질문 : 특별한 경험 확인 (*정착과정에서의 고난, 보람, 행복 등)

구 분	내 용
20 특별 경험	① 국내정착 이후 가장 기뻐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② 국내정착 이후 가장 가슴 아팠거나 슬펐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③ 국내정착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ABSTRACT

A Ground Theory Study o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omestic Settlement Process.

Park, Min-Woo
Major in Policy Sciences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settlement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Korea based on grounded theory. The exist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 very unique and special case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in the world. Although there are forms of immigration and refugees as an international migration phenomenon,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differs in nature and characteristics from immigration and refugees.

Although it is located in the same Korean Peninsula region and shares the same lineage, history, language, and text, it cannot live together due to conflicting political systems and is separated into two national systems. Although North Korea is in the form of migration to escape North Korea and move to another country, it is neither legal immigration nor illegal refugee. Another country on the same Korean Peninsula is the region that escapes from its own country and enters the country after a long journey.

Therefore, the existing theory of explaining the phenomenon of immigration or refugees is bound to limit the explanation of the phenomen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domestic settlement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the theory of evidence.

In this study, a theory-based derivation was attempted based on the research procedure, and systems, policy reviews, and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suppor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entral phenomenon of the domestic settlement proce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as analyzed as 'overcoming differences and limitations', and the results of 'Korean perception', 'middleman perception', and 'foreign migration' were derived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central phenomenon. As a result of the process analysis, the first stage is 'personal survival', the second stage is 'social adaptation', and the third stage is 'Korean assimilation', and the results of the type analysis are 'fate development', 'real complacency', and 'avoidance'. The final research theory derived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results of each stage is as follows.

"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 in Korea should overcome their differences and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survival, adaptation, and assimilation in South Korea, secure employment and economic power, and live as independent and confident citizen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domestic settlement, grounded theory, settlement support system, paradigm model.